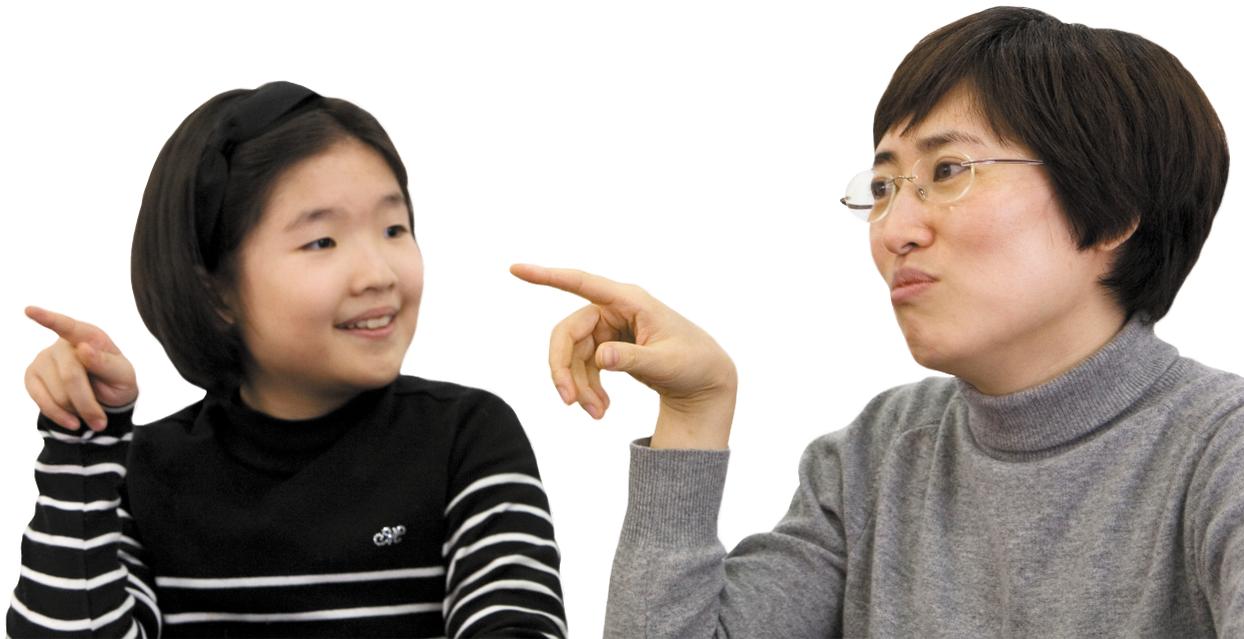


# 2

## 여성재단 파트너들

한국여성재단은 5월 기부 릴레이 모금 캠페인, 기업공동캠페인, 동전모금함, 재능나눔, 특정명의기금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해왔다. 100인 기부 릴레이로 대표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모금 캠페인은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연령층의 기부자들이 학교, 직장에서 참여해왔다. 10년간의 모금 사업을 통해 한국여성재단은 개인 기부자의 꾸준한 증가와 나눔 문화 확산, 투명한 재단 운영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많은 기부자, 파트너 기업들이 소외된 여성들을 지원하고, 남녀 평등 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천만 번 기부해도 괜찮아



여성재단 10주년 행사 때, 무대에 오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눈길을 끌었던 이가 있으니 바로 이가운이다. 이가운은 여성재단 최연소 기부자로 돌이 되던 해 돌 잔치할 돈을 여성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유명한 여성재단의 스타다.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자마자 기부한 것이니 아마 이 최연소자 기부 기록은 쉽게 깨지지 않을 듯 싶다. 그런데 걸지도 못하는 아기가 기부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재단을 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도대체 배후가 누구인지, 이후로도 이가운은 용돈의 일부를 여성재단에 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가운과 그녀의 어머니 황정혜 씨를 만났다.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운 도성초등학교 3학년 3반이 고요. 열살, 이가운이에요. 음식은 싫어하는 게 없고요. 싫어하는 과목도 없고요. 취미는 매일 달라져요.

앵? 그럼 오늘의 취미는 뭐예요?

가운 걸어다니는 거요.

엄마 놀고, 먹고... 그치?

지난 달 여성재단 10주년 행사에 갔다가 무대에서 가운이를 봤어요. 가운이는 돌잔치 할 돈을 여성재단에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운이의 용돈 중 일부를 떼어서 기부도 하고요. 왜 기부하게 됐어요? 혹시 엄마가 시킨 거 아니에요?(웃음)

가운 아니에요. 엄마한테 전쟁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도우려고 기부했어요. 엄마: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전쟁난 지역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애기들이 진흙과자 먹고 그러는

데, 가운이가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애라서 감정 표현이 여과 없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가운이가 저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가운이는 혹시 용돈으로 기부 말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형을 산다던가.

가운 (엄마 눈치를 보더니) 딱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운 군것질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친구가 사줬어요.

다행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기부방식, 실망도 많이 해 돌잔치 대신에 기부를 선택한 건 어머니님 의지셨어요?

엄마 네. 처음엔 여성재단이 아니었어요. 가운이 백일 때였나? 북한 수재민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북한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걸 봤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

요. 자기 자식을 먹이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당시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북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기부했어요. 근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저와 오래 함께 봐온 친구고, 기부자의 마음을 헤아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엄마 돈이 북한 아이들을 돕는데 쓰이지 않았어요. 그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잘 쓰였으면 됐지, 라는 식의 친구 말에 서운했고.

그럼에도 또 기부를 하셨잖아요.

엄마 그래도 돌잔치 할 돈으로 맨날 보는 사람들, 그것도 잘 차려 먹고 사는 사람들이랑 호텔에서 밥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여성재단을 알게 됐고요. 결혼하고부터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결혼 전까지는 남매간에도 성차별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집안에서 여자의 역할, 여자가 받는 대우, 그 근간에 있는 차별이 보이더라고요. 부잣집 딸들은 약하지 않지만 전쟁이나 법적보호 밖에서 약자는 여자예요. 또, 딸을 낳은 것도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 딸이란 걸 알고 얼마나 기쁘던지, 시어머니는 안 좋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좋았어요. 아이한테 제사 같은 거 물리기도 싫고. 사실, 여성재단에 기부를 결심할 때 걱정을 좀 했어요. 정치적 성향이 짙은 게 아닌가, 그래도 여자를 위한 거니까, 여자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기부하는 맛' 알게 되면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누게 돼**

남편, 시댁이나 친정 어른들이 반대하시진 않으셨는지

엄마: 남편은 그냥 따라와 줬어

요. 운동권 세대고, 연애 할 때도 허구한 날 술 먹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으니까. 비슷한 사람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친정 엄마도 처음에는 들은 척 만 척 하시다가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 제 성향 다 아시니까 그러려니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세대가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어요. 부모님 맨날 애들 잡으러 다니고(웃음). 기부가 나쁜 일도 아니었고요.

**원래 기부문화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대학 때 한국어린이재단과结缘했었어요. 그게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어느 날 글을 읽었는데 글쓴 사람이 매일 집에 와서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금통에 넣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건강하게 산 것, 하루의 소중한 일들에 대해서.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저

금통을 만들어서 저금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는 안 굶고 사는 것에 감사해요. 크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고요. 쓸 데 쓰고 나서 남는 거 기부한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쓰는데 끝이 있나. 대학시절에도 여유로워서 남을 도왔던 건 아닌 것 같고. 기부하는 기쁨을 알게 되면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누는 것 같아요. 가운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 학원 보낼 돈도 부족한데 기부? 라는 반응도 있어요. 가운이 친구들 학원 다니는 거 보면 덩달아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가운이랑 놀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학원, 싫어요. 학원 다녀서 성적 잘 나오는 것 보다는 (가운이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기부를 하면 하늘나라 통장에 돈이 쌓여요. 책에서 읽었어요.

가운이의 기부스토리를 보면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엄마 가운이한테 기부를 '시키지'는 않아요. 대신 기부가 왜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들려주죠. 근데 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배후 조정자라고.(웃음)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어떤 의미로든 다 배후조정자가 아닌가 싶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육관' 이고.

**여성재단과의 인연에 감사 여성재단 지켜보면서 어떠세요?**

엄마 처음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막상 여성재단을 지켜본 결과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잘 해내는구나, 남자들도 끌어안고 함께 갈 때는 여성재단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셨어요. 저도, 가운

이도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게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얼마 전 10주년 행사에서 20주년 행사에 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가운이랑 농담 반진담 반으로 이야기 했어요.

**기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여성재단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쉬운 점까지는 아니고요, 바람이라면 기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부송 만들어서 같이 부르고, 콘서트도 하고. '기부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이런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이는 여성재단 말고도 기부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어요.

가운 어깨동무, 수녀원, 다문화가정, 유니세프, 여성재단.

우와, 많다. 네이버 콩이나 크리스마스 썰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다고 하던데. 나누거나 기부하는 게 좋아요?

가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기부를 하면 하늘나라 통장에 돈이 쌓여요. 책에서 읽었어요.

허걱! 그럼 가운이는 하늘나라 부자겠네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언니 좀 도와주세요.~

가운 언니도 기부해서 부자 되세요.~



청담동 '울리어나나' 미용실의 박재영 원장은 사람들의 '머리(hair)'에 담긴 개인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생기는 짧은 시간 동안 박원장은 상담가가 되었다가 인생 선배가 되었다가 행복 전도사가 된다.



박원장은 실연을 당하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 사람들이 미용실을 찾는 이유가 안 좋은 기억들을 쳐내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냐면서 단순히 머리만 자르러 미용실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용실에 오면 얼마나 수다쟁이가 되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박원장이 상담가가 되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신부 화장을 하는 이들에게 결혼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봉사 나눔을 통한 행복을 알게끔 전도한다. 울리어나나 미용실의 단골인 슈퍼모델 강소영과 김디에나씨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한 것도 박원장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꾸준한 자원활동 경험을 통해 봉사라는 명목 아래 거행되는 폐해를 알고 있던 박원장이었기에 흉내만 내고, (고아원)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방식의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행복을 알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8년째 여성재단을 통해 고아원 <선덕원>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이야기는 박원장이 십대 후반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화 작가를 꿈꾸던 그녀는 미대를 준비했고 교내외 대회를 휩쓸며 실력도 인정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처럼 유화 알레르기가 생겼다. 유화 냄새만 맡아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다. 외모 꾸미는 것에 한창일 사춘기 소녀에게 두드러기와 탈모는 굉장한 시련이었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두드러기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고,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지고 나서야 붓을 손에서 놓았다. 난생 처음 가진 꿈을 잃었을 때의 허망함, 앞날에 대한 막막함, 흥취해진 물골에 대한 수치스러움으로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주변의 실망도 대단했다.

낙심한 그녀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설득으로 남대문 '양동'이라는 산동네로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곳에서 집에 홀로 남겨진 산동네 아이들을 돌보았다. 한글과 셈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씻기고, 이를 잡아줬다. 아이들의 지저분한 머리를 만져주려 했지

만 커트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네가 미용기술을 배워서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면 좋겠다"고 했다. 무심코 넘겼던 말이 다시 떠오른 건 시간이 한참 뒤 머리를 자르러 간 미용실에서였다. 차레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크로키를 하듯 섬세하게 가위를 움직이는 미용실 원장을 보며 미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원장이 미용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게 해주었던 부모님이었지만 '미용은 천한 일'이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딸의 결심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대학 등록금이라고 속여 100만 원을 받아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박원장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박원장은 10년을 밖에서 생활했다. 미용 보조를 거쳐 청담동 잘 나가는 헤어숍 <울리어나나 미용실>의 원장이 되기까지, 돌아보면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다.

미용실이 자리를 잡아갈 즈음 박원장은 다시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새로운 삶

을 주었던 봉사였기에 그 의미가 특별했다. 비인가 재단에서 고아원을 소개 받았다. 그러나 고아원 측에서는 그녀에게 돈만을 요구했다. 방문도 반기지 않고 매달 얼마씩 통장으로 부쳐달라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봉사'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 재

은 그 모습을 보고 박원장을 꾸중했다. 재능기부 하러 오신 것 아니냐, 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다', '물질적인 보상만 하려다 보면 봉사를 오래 하기 힘들다', 면서, 갑작스런 꾸지람에 민망도 했지만 그런 선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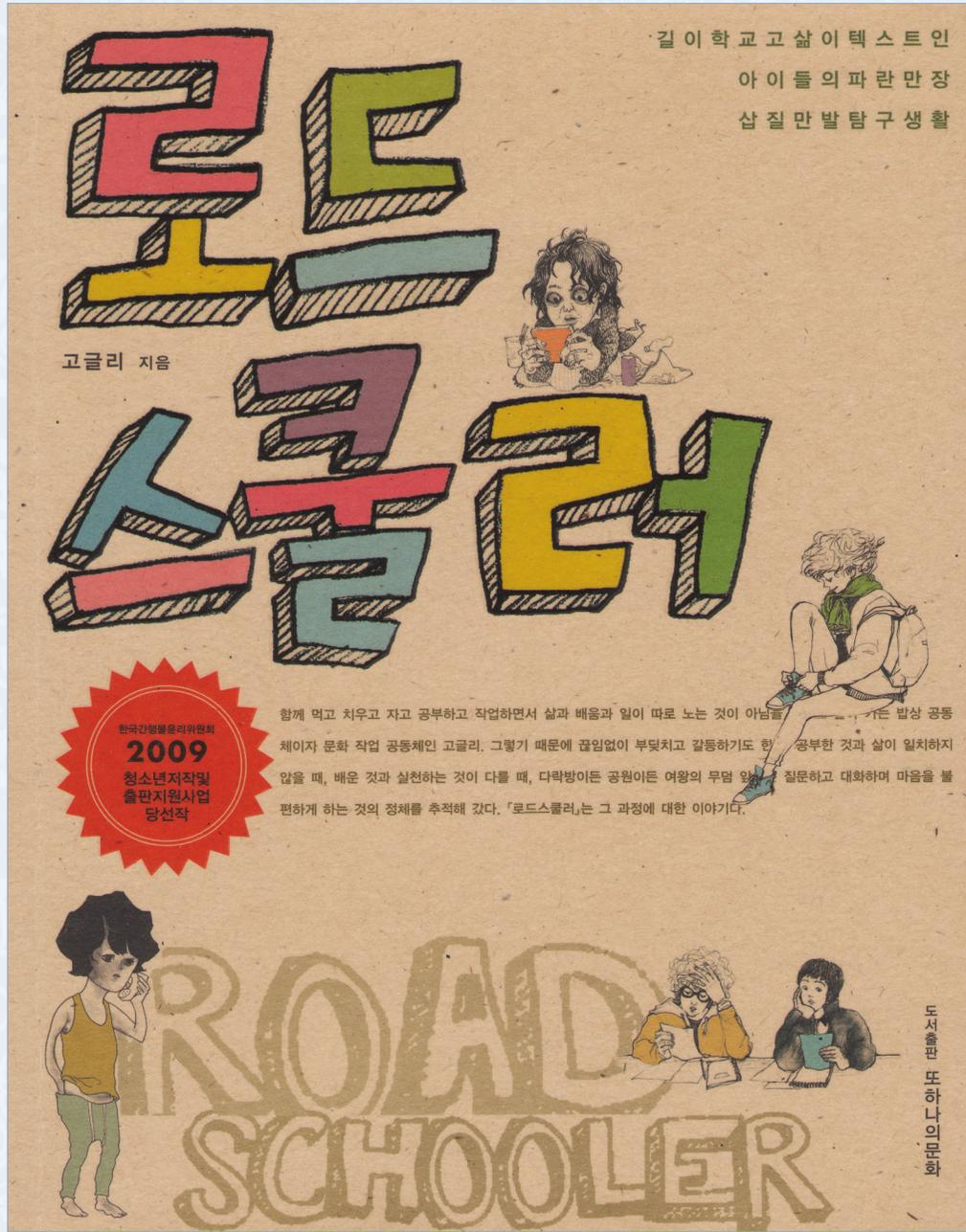
단과 고아원의 배려 없는 태도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박원장의 이런 사연을 들은 손님이 여성재단을 소개해줬다. 여성재단을 통해 <선덕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기로 했다. 이런 봉사를 여성재단에서는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여 '재능기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첫 방문 날, 아이들이 쓸 샴푸를 잔뜩 사 들고 <선덕원>을 찾았다. 박원장을 환영하러 나온 선덕원 원장님

원장님의 태도가 감사했다. 그게 2003년이였다. 그때부터 매달 두 번씩 선덕원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손질했다. 박원장이 선덕원에 등장하면 70명의 아이들이 두 줄로 줄을 서 박원장의 손길을 기다린다. 야무지게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설명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설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도 있다. '선생님이 머리

해주셔서 면접에 붙었다며 목덜미에 매달리던 아이, 편지를 써주는 아이... 아이들은 박원장이 준 것보다 많은 사랑을 되돌려주었다. 미용실에서 돈 받으며 손님들의 머리를 만질 때보다 즐겁고 보람찼다. 때로 <율리아나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와 아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이 선덕원의 아이들을 만나며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감동스러웠다. 아들과 함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를 존경한다고.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다. 긴장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했다.

선덕원에 재능기부를 하면서 박원장은 나누면서 갖게 되는 행복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봤으면,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자부심을 가져봤으면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재능기부를 소개했다. 소개의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다. 이전에 고아원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 선덕원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

었던 사연들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혹여나 누군가 나처럼 나누려다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닐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나눌 의지가 있고, 나눌 준비가 된 사람들을 여성재단에 소개했다. 8년간 여성재단을 보아오며 가졌던 신뢰가 바탕이 됐다. 재능기부를 하는 동안 박원장을 챙기고, 격려했던 여성재단에게 갖는 고마움도 특별할 수 밖에 없다. 8년 전부터 박원장을 만났던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는 박원장 같은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박원장은 이런 아이들의 미용 공부를 지원하고 <율리아나>로 데려오려 한다. 시간이 지나 그 아이들이 재능기부를 할 때 짊어지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져 있기를 바라며.



김강산의 인세나눔



저자 **김강산** 로드 스쿨러 공동저자

길을 학교삼아, 삶을 텍스트삼아 늘고 배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로드스쿨러로 명명하게 되는 과정! 그 술직, 발직, 영똥, 유쾌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경순 | 100인 기부 릴레이 이름이

나, 돈 모으는 여자예요

이경순 여성재단 이사를 만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일할 때 목격한 장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고 있다. 가장 앞에서 걷던 이경순 위원장이 계단 위로 올라서고 그 뒤로 십여 명의 남자 직원들이 따르고 있다. 눈, 설다. 텔레비전이나 일상에서 이런 상황의 앞자리엔 늘 남자가 있었다.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경순 위원장의 뒤에서 한 직원이 무슨 이야기가를 건네고 고개를 고덕이던 그녀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자 남자 직원은 얼른 옆으로 다가서며 보조를 맞춘다. 내 옆을 지나쳐간 그들을 고개 돌려 한참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판을 바꾸죠. 영화 심의위원 9명 중 2명만 여성이었어요. 영화관계 토론회나 방송관계 세미나에서 끝없이 주장했죠. 영화를 보는 인구나 텔레비전 보는 인구를 생각해보면 여성이 훨씬 많은데 왜 심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인 거냐에 대해. 적어도 제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는 남성 4인, 여성 5인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어요. 여자들은 때때로 몸에 배인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걸 선뜻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별이 몸에 덜 배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딸만 셋이었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소녀기를 보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들 없는 집을 결혼가정 보듯 하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었죠.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를 돕는 일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어렵פות이나마 했던 거 같아요. 여중, 여고, 여대를 다녔는데 재밌는 건 남자형제가 없고 남학생이 없는 공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당할 기회가 없었

어요. 이런 거죠. 남녀공학 같은 남학생이 회장을 하고 여학생이 부회장을 하고 하는데 여학교는 회장도 부회장도 다 여학생이 그냥 하는 거라. 차별을 실감한 건 결혼을 하고 나서였어요. 시집은 경상도고 남편네는 아들만 다섯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남자 위주라, 남자들이 먹고 난 밥상에서 밥을 먹더라니까요. 남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자매들이 양보를 하고 이런 게 없는 문화에서 살다가, 놀랐죠. 결혼해 살다보니 여성운동이 왜 필요한지 절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단체들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하다가 결혼 무렵 건강이 안 좋아 1977년 퇴직을 했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 TV가 보급됐는데 신문마다 1주일에 한 번씩 TV평이 나오더군요. 주로 신방과 교수들이 썼는데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았어요. 미국에선 어찌구, 유럽에선 어찌구. 복잡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중앙일보에서 드라마평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들어왔어요. 주부들이 드라마를 많

이 보니 주부가 직접 써보면 어떠냐는 제안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영화와 드라마평을 한 대학교수와 격주로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불만을 지적하고 콕콕 집어내주니까 시청자들도 속이 시원했나봐요. 이후에 월간지에서도 청탁이 들어오고 YWCA와 여협에서 모니터링 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지요. 본격적인 모니터 운동이 시작된 시점이 그 때였어요. 당시 방송에선 “여성운동 한다는 여자들 살림살이 안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따위의 말이 심심하면 나왔지요. 여자가 왜 그렇게 암전치 못하나라는 말은 아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단골 대사였어요. 여성단체에서 모니터를 하고 의견들이 시청자위원회에 전달되면서 점점 나아졌지요. 그러면서 시청자위원회 일도 하게 됐습니다. TV가 파워를 가지면서 방송위원회 등에서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하면 발표자나 패널이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남자들은 항상 그래요. 바빠서 못 봤지만 미국에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요. 내 순서는 늘 끝이야. 주부니까. 그

럼 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부라서 시간이 많아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도 마찬가지야. 교수들이나 기자들은 TV 많이 안 본다고. 바빠서,



밤마다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드라마 볼 시간이 제대로 있나. 그러니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위원들은 거의 다가 남자였지요. 방송 수용자는 여자가 많은데 그걸 심의하

는 사람들은 남자인 거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등급 위 심의실. 사무국 직원이 살짝 오더니 옆자리에 앉은 심의위원

에게 위원장님이 잠깐 부르신다는 전갈을 한다. 점심을 같이 먹으며 물어본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응, 여성재단 기부 릴레이 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부 릴레이요?” “매해 5월에 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이끔이시래.”

“그래서요?” “좋은 일이잖아. 나도 딸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했어.”

여고동창, 대학동창, 집안식구들 그러니까 동서, 조카, 며느리 모두 동원해요. 특히 5월 기부 릴레이 때는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미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까지 찾아서 연락해요. 진짜 고마운 건 십여 년만에 연락해 이리저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모두 “어머 애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하면서 동참해준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그것이 직업이 아니라 자원활동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비도 내야 하고 회의에도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회의에 참석을 못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 할 거면 그만둬야죠. 나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죠. 5월 캠페인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내 줄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부끄럽지 않죠. 저는 5년 동안 완주를 했어요. 이 캠페인의 원칙은 릴레이예요. 릴레이 전체를 책임져야죠. 사실 때때로 친구들한테 신세를 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놀라운 건 돈이 많다고 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은 정말 재력과 상관없이 없는 거 같아요. 마음의 문제죠. 여성재단과는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천여명이 모이는 대학 동창모임에서 장학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상을 받았어요. 동창회장이라 한 일이었을 뿐인데 그 과정을 본 이연숙 선생님이 돈 모으는데 재능이 있으니 여성재단에서 일을 하자고 하셔서 오게 되었죠. 와서 보니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구분이 분명한데 여성과 관련된 일은 제의가 오면 거절하지는 않아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모금공연이나 일일 찻집은 티켓이라도 사지요. 나도 여성이니까 여성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의무랄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 기획홍보위원장을 하고 지금은 이사직을 맡고 있지요.

여성재단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장에서 만난 그녀. 단발머리와 트렌치코트가 잘 어울린다. 문득 교토가 생각난다. 오래된 도시

교토에서 금각사나 기요미즈데라보다 흥미로웠던 건 나이 든 여자들이었다. 동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신문을 보며 느긋하게 브런치를 즐기고 크고 작은 단체들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열린 화장과 단아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거닐던, '할머니'라고 부르기에 뭔가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의 나이 든 여자들. 조금 일찍 시작된 근대 덕분에 우리보다 먼저 만날 수 있었던 '나이 든 근대 지식인 여자'의 얼굴과 풍채. 조금은 부러웠던 그 향기가 이경순 여성재단 이사에게서 난다. 좋은 교육을 받고, 배운 것을 실천할 줄 알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든 여자인류. 그 앞줄에 그녀가 있다.

YWCA 활동을 20년 넘게 하면서도 이사직을 맡지 않았어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많은 걸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그래서 내 그릇만큼 거들겠다 했지요. 내 능력, 자질을 봤을 때 나는 기획홍보위원이나 홍보출판위원 정도 하는 것이 딱 맞거든요. 내가 이 소신을 깨면서 이사직을 맡은 건 박영숙 선생님 때문이에요. 박

영숙 선생님의 헌신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만큼은 거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지요.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기적이고 얌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 때마다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절감합니다. 그분의 열정과 헌신은 사람을 감복시키는 힘이 있지요. 권유를 뿌리치는 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맡았지요. 박영숙 선생님 댁에서의 송년회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환대하시는 마음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성을 위한 일엔 좀 덜 적극적이죠.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었고 남녀평등 지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여성 쪽에 무게를 좀 더 뒤야 할 거 같아요. 여성재단의 재원이 마련되어서 여성단체가 돈 걱정 안 하고 맘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길여 | 가천길재단 회장

간절히 꿈꾸고 끝없이 도전하라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여자로 태어나 세상을 껴안고 싶은 사람, 여자라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그는 지난 4월,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길여 회장은 의료, 교육, 연구를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신념으로 가천 길병원, 가천대학, 뇌과학연구소 등을 건립했고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가천미추홀봉사단 등 문화, 교육, 사회봉사단체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의사로서, 경영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온 70년의 쉼 없는 여정.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해 온 <가천길재단>의 이길여 회장을 만났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오늘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길여'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오늘의 가천길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재단 내의 임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나 스스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에 한번 '몰입'을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성격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비결을 묻는다면, 그것은 '열정과 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천길재단의 로고는 '바람개비'입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바람개비는 제 삶의 표상(表象)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직업선택에서 남녀차별이 많았을 텐데요.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계기가 있었나요? 의사가 되어서도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길거리를 지나다 상처를 입은 강아지, 고양이, 새 같은 동물을 보면 집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에게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준 다음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의사놀이를 한 셈이죠. 또 소학교 시절에 만났던 교의(이영춘) 선생님도 제가 의사가 되도록 '자극'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대고 다정하게

진찰을 해주곤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나도 커서 꼭 의사가 되어야지' 하고 의지를 다지곤 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확고부동한 신념이 된 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1948년 동짓달, 당시 서른다섯이었던 아버지가 급성폐렴으로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치료를 해주었다면,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어른들의 한숨소리에 가슴을 찡고, 이런 체험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의 길을 걷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첫발을 내디뎠던 1950년대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여의사가 드물었고, 특히 여자 산부인과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인텔리인 여의사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 동료의사들이 저의 능력을 오히려 먼저 인정해주더군요.

의사라는 직업은 생사를 다루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끝없는 공부 등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후회하거나 벽에 부딪쳐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회장님을 지탱해온 소신이 있었다면?

내 성격이 낙천적인데다 평소 의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환자들이 안타까워 열심히 진료활동을 했고, 선진 의학을 배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미국과 일본으로 홀로 유학을 갔을 때도 외롭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수많은 좌절과 위기가 있었지요. 인천 구월동에 중앙길병원을 세울 때 공사를 맡던 건설회사가 갑자기 망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인천에선 '이길여가 부도를 냈다', '길병원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더욱 분발하고, 진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한 결과, 꼬였던 일들이 다시 풀리곤 했습니다. 나는 일이 닳치면 전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에서 자란 시골 소녀가 맨손으로 병원을 세우고 사업을 일구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의 인생철학이자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더 어렵고 건강도 돌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회장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기도 하고, 1994년에는 여성 전문병원인 '여성전문센터'를 개원하였는데요, 의사로서 그간 만난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특히 이혼 후 홀로 사는 여성,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은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중년과 고령 여성 가구주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바우처제도를 도

입해 무료진료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산부인과 환자를 보아온 의사로서 여성 질환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병원을 세운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주부들을 모아 부인병과 자궁암 예방 등 건강 교육을 실시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이 대부분 허리를 굽히면서 장기간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 고령이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들이 암에 걸려도 자신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딱한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중앙길병원을 완공한 후 전문클리닉으로 '여성전문센터'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길병원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저서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라>를 보면 '결혼도 안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며 걱정하시던 어머님을 설득하여 전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모두 어렵게 살던 시절, 거지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늘 고봉밥을 차려주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가진 것을 풀어서 나눠주는 매우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봉사와 복지사업을 꾸준히 벌이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내가 의료재단을 만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한때 의료재단 만드는 것을 걱정하고 반대하시던 어머니에게 “종합병원을 해야 개인병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의사의 길이자 ‘봉사의 길’이라고 설득하자, 어머니도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당시 의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사(士)자’ 붙은 직종의 사람들은 일반인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잇속만 챙기는 집단’이란 따가운 시선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싫었고,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 가천모성보호기금(이길여기금)을 비롯해, 새생명찾아주기, 사랑의 바자회 등 나누는 일에도 솔선수범하고 계신데요.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해주시고, 회장님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가천길재단이 내걸고 있는 것발은 ‘봉사’, ‘박애’, ‘애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와 학생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만, 사실 사랑의 힘은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사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가진 것을 베풀고 함께 나누면 상대방도 나를 신뢰합니다. 내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보증금 없는 병원’, ‘돈이 없어도

치료해주는 병원’, ‘무료진료’를 과감히 실천하고, 철원과 양평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적자를 감수하며 병원을 경영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캠페인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도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공동번영을 가져다주는 제도인지 의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회 상류층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와 봉사활동은 사회를 튼튼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미국에서 부자랭킹 1, 2위를 다투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專門家)가 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고,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려면 나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되려면 세상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생각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또 ‘젊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사람의 품성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진국이 되려면 남을 돕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차세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일수록 사회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도전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날 다소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상대로 항상 도전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병원장으로 편히 살 수 길을 택하지 않고 서른이 넘어 미국 유학을 갔고, 일본의 선진 의술을 배우기 위해 마흔네 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 무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타는 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서 자신의 바람개비를 돌리기 바랍니다.

**여성재단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많이 취약합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고 혼자서 생계를 꾸어가는 가난한 독신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생명 새희망 공동캠페인>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후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으로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기둥이 되도록 지원하는 일은 즐겁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박애, 봉사, 애국의 가치이념을 가진 길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100퍼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금

활동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며 남성 회원들도 많이 받아들여 지지기반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재단은 저 역시 발의를 해서 만든,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정이 많죠. 기부는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축한 것을 자기가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부를 하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다시 더 큰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저는 체험을 합니다.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이길여 회장이 일구어낸 많은 일들. 이 사회의 동력이 되도록 가꾸어낸 성과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아직도 그의 꿈은 미완성이란다.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병원, 가슴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그의 꿈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잊고 있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자신만의 바람개비를 돌려보시길…….

## 한국여성재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11월, 한국여성재단을 처음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홍보대사를 자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성재단의 활동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동안 멋지게 재단을 이끌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 20주년, 30주년, 계속해서 희망이 이어져 나가길 기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이소정**

이소정 보컬리스트, 2003년 12월 위촉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보컬리스트 이소정 씨는 한국여성재단의 다양한 모금행사에 참여해 재능나눔을 해왔다. 또한 100인 기부 릴레이, 계간지의 표지모델로 참여하여 여성재단을 홍보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은욱 부사장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을 접해본 사람과 접해보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자연을 접해본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사는 법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고 훼손한다는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이은욱 부사장님 인터뷰는 오지여행 이야기로 시작됐다. 내가 상상했던 부사장님의 영예로운 성공담과도, 부사장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강남 테헤란로의 회색 고층 건물들과도 씩어올리는 시작은 아니었다. 그래서 좋았다. 기대가 됐다.

####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기

이은욱 부사장님이 들려준 여행 이야기는 이랬다. 10여 년 전, 그는 캐나다 벤쿠버 섬에 위치한 뱀필드(뱀필드는 서해안 특유의 해안 경관을 간직한 오지 마을이다.)를 여행했다. 그곳에서 머물던 중 연어 낚시를 갔는데, 강에 팔뚝만한 연어떼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연어를 낚을 생각에 신이 난 그는 미끼를 쥔 낚싯대를 던졌지만 그 많은 연어들 중 한 마리도 미끼를 물지 않았다. 장소를 옮겨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연어 낚시를 실패하고 돌아온 그에게 민박집 주인은 '연어를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끊는다'고 귀뜸해 주었다. 그런데 그토록 정갈한 태도로 출산을 맞이하는 연어들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었으니 바로 비가 올 때였다. 비가 오면 연어들

은 물 위로 펼쩍펼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걸 아는 독수리나 곰은 비가 오면 강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연어를 낚아채 갔다.

한 번은 그도 비가 오는 날,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곰이 커다란 손으로 연어를 빠르게 낚아채 강 언저리에서 허겁지겁 먹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곰은 연어의 내장만 먹고 살점과 뼈는 숲으로 던져 버렸다. 옆에 있던 뱀필드 주민은 곰이 남긴 살점과 뼈가 양분이 되었기에 뱀필드 나무가 유독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렇게 자라난 나무들도 언젠간 늙고 썩어 강가로 쓰러지고, 쓰러진 나무가 흐르는 강물을 막아 물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그 나무 밑에다 연어가 알을 낳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 연어들은 나무의 양분을 먹으며 자라고, 그렇게 자란 연어가 태평양으로 떠나고 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이것이 뱀필드, 곧 자연의 순환이라 했다.

#### 숲 운동과의 인연

28년 전인 그러니까 그가 유한

킴벌리에 입사한지 3년이 되었을 때다. 어느 날 갑자기 마케팅부에서 하는 일 이외에 추가로 그에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추진하는 일이 주어졌다. 사회공헌을 위한 의미있는 일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일은 쉽지 않았다. 1985년, 동기들은 정장을 차려 입고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후줄근한 차림으로 충북 제천 화전민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전깃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도와주는 손길도 많지 않아 직접 전봇대 위에 현수막까지 다는 일까지도 맡아서 해야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역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폼나게 성과를 브리핑하는 동기들과 달리, 마케팅부문의 업무도 하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일까지 맡아서 하다보니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야 했다. 그러니 자신의 일에 회의가 들었다. 나무나 심으려고 힘들게 입사한 게 아닌데 싶어 그만둘까 고민도 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도 폼나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처음 나무를 심었던 충



북 제천의 화전민 마을에 가보고, 캠페인 초기에 심었던 30cm도 안되던 소목들이 3m가 넘는 나무로 자라 울창한 숲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보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IMF가 닥쳤다. 서울 강남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기업들에게도 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달러가 1불에 2천원 가까이 오르고 해외

에서 원료를 들여오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붙어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그와 그가 속한 회사가 고민했던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다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구축해온 숲과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사회 리더들과 학계,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숲과 자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숲가꾸기를 통해 IMF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1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학교 숲운동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참여했으며, 북한과 몽고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존경받는 유한킴벌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나무와 숲을 가꾸는 일은 많은 인내를 요구했다.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는데 60여년이 넘게 걸렸다. 생명이니 죽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리를 필요로 했고, 대부분 유한킴벌리가 심은 나무들은 국유림에 심은 지라 회수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늘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내일 숲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 해석되죠.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관점이 삶을 지배하고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을 창출해내는 유한킴벌리를 만들었다.

#### 여성재단과의 인연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도 멋진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여성이 사회의 반이죠. 그 반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소비자예요. 나의 소비자가 고민이 있는데 도와줘야지요.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희로서도 기쁜 일입니다.”

여성 소비자들의 고민과 필요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

고자 하는 것, 육아의 어려움, 숲이나 공원의 필요성 등 다양했다. 이런 다양한 고민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파트너로서 유한킴벌리는 여성재단을 찾았다. 고민과 필요 중 일부가 여성재단의 사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주로 여성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만큼 여성들의 발전과 환경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한킴벌리는 소비자뿐 아니라 여사원들의 필요와 요구에도 귀를 기울였다. 시차출퇴근제를 포함한 탄력근무제의 시행을 포함해서, 90일로 보장하고 있는 산전, 산후 휴가를 해고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가장 선진화된 육아 복지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그것이다. 여성들의 권리와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도는 아직까지 그 변화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그는 여성의 일과 육아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여성재단에서 정신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나눠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여성재단에 장학금을 후원한다

고 해서 유한킴벌리가 사회공헌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피드백하고, 때론 요구도 하고, 후원으로 인해 사회적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성재단과 함께 도와가는 것이 공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신경쓰고 요구할 겁니다.” (웃음)

여성재단의 10년을 축하하며, 그는 한 가지를 더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여성리더를 양성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지요. 김치 독을 물을 때 깊게만 파서는 물을 수가 없고, 넓게 팔 때 깊게 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도 운동의 폭을 넓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성리더가 자리할 수 있도록, 여성재단이, 여성단체들이 도울 때 여성들의 역할과 권리가 더욱 확장될 겁니다. 여성재단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성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출현하길 기대하구요.”

\* 유한킴벌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NGO활동가들의 안목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기여하고자 (미래여성리더십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재단과 함께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날자 프로젝트'를 지원한 지도 벌써 4년째다. 사람으로 치면 4살. 흔히 '미운 네 살'이라고 불리는 나이다. 날자 프로젝트는 어떨까. 예쁘다, 라고 말하면 고슴도치 부모 같지만 서상웅 삼성생명 과장에게는 예쁘다. 예쁘게 잘 성장해주었다. 고맙게도.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성재단의 힘이 컸다.



나의 믿음직한 파트너 여성재단

2006년 초로 기억한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방문 이벤트를 통해 건당 500원씩을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총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일종의 공익연계 마케팅이었다. 조성된 기금으로 어떤 의미있는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여성재단의 강경희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슈가 되던 즈음이라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머리를 맞대니 결혼이주여성의 고향 방문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그 해 연말에 기금이 조성되고 2007년 첫 사업에 착수했다. 그 이후 날자 프로젝트는 아류작을 양산할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첫째 필리핀부터 시작해 올해 베트남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 방문에 매해 빠짐없이 참여했다.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계속 보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995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공익재단으로 발령을 받아 2004년까지 9년 동안 근무했다. 그 이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생명

사회봉사단에서 일했으니, 사회공헌사업만 15년 동안 해온 셈이다. 15년 동안 파트너로 만난 NGO들도 무척 많지만, 직접 현장에서 함께 발로 뚫은 덕분인지, 여성재단만큼 신뢰가 가는 단체도 드물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다음 두 가지로 답하겠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진정성, 둘째, 파트너 기업에 대한 이해. 아직까지도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때때로 NGO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재단은 파트너를 존중하며 이해해주는 함께 일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재단이다.

기업마다 본연의 취지와 가치에 맞는 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고 싶어한다. 자동차회사가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 버스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이동통신 회사가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사업 테마는 '여성'이다. 보험 설계사들이 여성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보험 가입 결정권의 대부분이 여성에

게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하고 있는 여성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 사업,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날자프로젝트, 비추미여성대상, 이렇게 다섯가지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여성과 관련한 지원 아이템을 고민할 때는 여성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이다. 여성재단이 단순히 상징적인 여성 단체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는 단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종종 일과 관련하여 외국으로 출장을 갈 때가 있는데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과 외국 기업의 사회공헌을 비교해볼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는 유럽을 들여다보면 한국과의 차이가 명징하게 보인다. 우리가 사회공헌 브랜드화, 집중의 대상, 전략적인 부분들에 집중한다면 그쪽은 자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다. 선진국이란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발맞추어 나갔을 때 만들어진다는 걸 새삼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사회공헌이나 파트너 단체들과 교류를 해오다보니, 우리 사회의 변모된 모습이 눈에 보인다. 예전에는 NGO쪽에서 프로젝트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녔다면, 지금은 기업에서 NGO를 찾는다. 양쪽 모두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NGO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수평 관계를 형성해야만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를 사회공헌 사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우선 필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다. 처음 사회공헌 파트에 왔을 때는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지원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충실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내 역할은

역량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굴하여 기업의 자원(인적, 물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하는 오가나이어(Organiz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업이 가진 자원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유능한 NGO와 연계되어야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각 사업의 평가이다. 기업의 지원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객관적인 평가야말로 사회공헌 사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IMF와 같은 금융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 나의 파트너 여성재단에게

여성재단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활동적이며, 신뢰가 가는 파트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

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의 많은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단체다. 그리고 지난 십년간 한국 사회와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GO다. 여성재단에게 감명을 받았던 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원도 찾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였다. 모두 제 살길 찾기 바쁜 세상에서,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며 손 잡아주는 단체가 우리 파트너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 삼성생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프로젝트 날자(NALJA)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홍상식 | 교보생명

### 다섯 리더십이 여성재단을 찾다

홍상식 | 교보생명 사회공헌팀 팀장을 만나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은 교보생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대부분 빈곤층을 위한 복지사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활동가를 지원하는 짧은 여행 긴 호흡'은 매우 특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온 교보생명 사회공헌팀의 홍상식 팀장에게 짧은 여행 긴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했더니 너털웃음부터 짓는다. 그 웃음 속에 고비를 넘긴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3일이었지만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숨통이 트인다. 아이들은 더 사랑스러워졌고 남편도 이제 내 편이 되어 줄 것만 같다. 삶의 여유도, 행복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듯싶다.”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쉽과 회복뿐만 아니라 3개 이상의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연수팀을 구성함으로써 여성공익활동가간의 네트워크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상호 지지망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짧은 여행 긴 호흡 참가수기 중

**‘짧은 여행 긴 호흡’**

**함께 하며 다진 우정**

여성재단 10년의 역사를 회고할 때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사업이 ‘짧은 여행 긴 호흡’이다. 박봉과 격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공익을 위해 일하는 여성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선정하여 여행을 통한 쉽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150~200여명의 활동

가들이 ‘짧은 여행 긴 호흡’에 참여하고 있다. 여행에 참가한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가 있을까, ‘그저 쉬고, 여행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단기 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짧은 여행 긴 호흡’이 자리를



과 동시에 여성단체들 상호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짧은 여행 긴 호흡’이 의미 깊은 프로젝트긴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끝없이 의문을 가졌던 사업이었다. ‘여성활동가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

찾아나가고 교보생명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다.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린다.’라는 교보생명의 기업이념과 눈앞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지원하라는 최고경영자의 철학은 교보생명이 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의미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짧은 여행 긴 호흡’ 프로젝트는 올해로 8년차를 맞는다. 수혜를 받은 여성활동가들은 여행을

**가족과 여성을 생각하는 교보생명 사회공헌**

교보생명 사회공헌팀은 2002년 만들어졌다. 사회공헌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교보생명은 비

어느 곳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한다.

교보생명은 ‘가족’을 가장 기



통해 얻는 의미있는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왔다. 이런 피드백들은 교보생명이 여성재단과의 사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나 개인을 지원했다. 그러나 체계화되지 않은 기부금 전달이나 예산 집행만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02년 사회공헌팀을 출범시켰다.

교보생명 사회공헌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다. 물론 사업을 통해 기업이 미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기대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 건강하려면 가장 기본 단위의 가족이 건강해야 한다는 모토 아래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가족농촌체험, 가족 봉사활동 등 가족을 화두로 한 사회공헌 사업에 집중한다. 가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여성에게까지 확장되었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가진 교보생명이 여성재단과 만나는 건 지극

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여성재단과 함께 한 첫 프로젝트, '빈소년 합창단' 공연 이후 교보생명에는 빔프로젝터 대여사업도 재단과 함께 하고 있다. 넉넉지 못한 여성단체의 재정 상황과 비싼 빔프로젝터 가격을 고려해 교보생명에서 빔프로젝터를 여성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에서 여성단체들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해준, 재미있고 기발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기업과 비영리단체, 그 하모니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것이 비영리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해나가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목적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선 일치하더라도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기대하는 성과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홍상식 팀장은 사회공헌팀은 비영리단체와 기업내부 모두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기업내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사회공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직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직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행사나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인생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의 발전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기업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아이디어와 자신감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파트너 기업과 직원들도 함께 성장시

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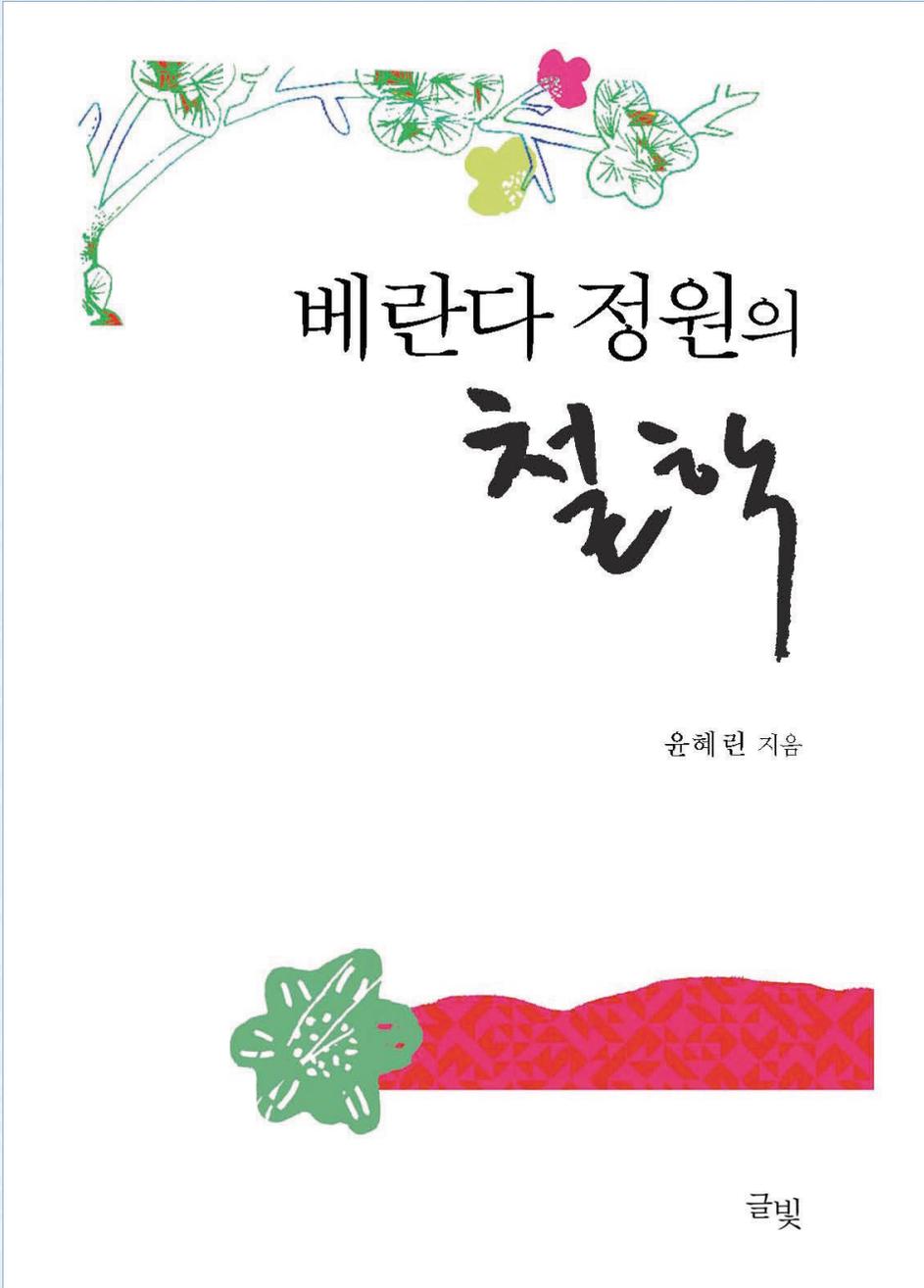
홍상식 팀장이 전하는 또 하나의 윈-윈(Win-Win) 노하우는 ‘서로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다.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다름으로 인해 각자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가 쉬우며,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보기가 쉽다.

경험적으로 보면 기업 사회공헌팀의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장점을 결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기업도 비영리단체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팀 원년 멤버인 그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다. 여성재단 10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2008년부터 NGO의 재정확보를 돕는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모금전략워크숍>과 2004년부터 여성활동가의 국내외 연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심 프로그램 <짧은 여행, 긴 호흡>, <빔프로젝터 대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자 윤혜린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소장

“왜 너의 마음은 성장하지 못하는가”라고 채찍하는 대신 어느 날 푸른 새 잎들을 속내밀고, “왜 그리 마음이 너적하지 못한가”라고 안타까워하는 대신 어느 샌가 화려한 꽃을 피워 올려 주는, 내겐 선생님이자 친구인 베란다 초록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기,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되어버린 듯한 이 문장.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쳇바퀴 전당포에 삶을 저당 잡힌 표정으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게으르거나 이웃의 문제에 무관심한 것을 사면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세상은 평등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질까. 이상엽 우림건설 전략기획부 부장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누군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대학생이던 198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청계산 자락에 모셨어요. 지금은 길이 뽕뽕 뚫려있는데 당시엔 버스에서 내려 30분을 걸어가야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 산소 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그 길가에 있는 보육원을 들르게 됐고, 가시서 아이들이랑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이 보육원을 지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죠. 일단 시작하고 나니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일 덕에 저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기운을 느끼거든요. 그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다가 우림건설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회사에 사회공헌

팀이 없었어요. 당시 우림건설은 별도의 사회공헌 부서를 운영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회장님께 제안을 했죠. 건강하게 돈을 쓰면 그 돈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건강한 힘이 기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 드렸어요. 결국 사회공헌팀이 만들어졌고 벌써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죠. 사회공헌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는 물론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효과를 정량화 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세상사 대부분은 정량화를 할 수 없는 정성적 요소들이죠. 사회공헌은 특히나 정성적 요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사회공헌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숫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벌먹고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 “저지른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일을 하다보면 효율성 중심의 기업 입장과 가치 중심인 NGO의 입장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서로를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융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빛을 볼 수 있거든요. 서로를 배타적 존재로 생각하면 점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기업이 가질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NGO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이나 효율성, 마케팅 경험은 NGO가 부족한 부분이고, 기업에서는 사회공헌과 관련한 현장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산정하는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책을 통한 소통을 생각하게 됐어요. 매달 '이달의 책'을 선정하고 대표이사가



데는 부족할 때가 많은데 이것들이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기업과 NGO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어가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들 역시 백화점식의 사회공헌이 아니라 자신의 규모에 맞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림의 경우, 문화를 매개로 한 소외계층들과의 소통을 추구합니다. 사회공헌이란 그 기업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특징, 둘**  
**"소통한다. 상대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우림 사회공헌팀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가 책 나눔입니다. 건설업의 특징 중 하나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현장이 다 떨어져 있으니 직원들도 떨어져 있게 돼요. 그것이 고민의 시작이었죠. 요새는 트위터를 비롯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

직접 자필 독후감을 써서 책과 함께 인쇄된 채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독후감이지만 그것은 거의 편지에 가깝습니다. 책의 내용과 연관해 경영자로서의 고민, 회사의 사정, 누구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그리고 이슈별로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이야기들이 써 있었죠. 그러면 직원들은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요. 직원들 역시 책을 읽은 소감과 함께 책의 내용과 연관해서 회사의 문제를 적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을 통해 조직의 상황이 공유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도 우림이라는 기업과 소비자들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계기가 됐죠. 지금도 저희가 짓는 아파트에는 도서관을 꼭 만듭니다. 15년여를 넘게 오천여권의 도서를 사회 각 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도서나눔을 실천했고, 저희가 지은 아파트단지 도서관도 후원했습니다. 책을 통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 것이고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은 책을 보면서 아파트를 지은 우림이라는 회사를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니까 기업으로서도 좋은 일이지요. 사실 건설회사에서 도서나눔을 하겠다고 하니 처음엔 얼마나 갈지 의구심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되고, 15년이 흐르니 독서경영과 감성경영을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 즐거웠어요. 한편으로 사회적인 명사들을 초청해 사내 강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어느덧 200회가 되었어요. 또 시와 음악을 엮어서 콘서트도 했

었죠. 우림건설을 찾아 직원들과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박원순 변호사, 윤석화 씨 등 많은 명사들이 우림은 참 건강한 회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덕분에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우림을 응원하고 있어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진솔하게 형성해 나가는 인연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기업과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맺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회공헌의 개념이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의 특징, 셋**  
**"창의적이다. '다른' 꿈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한다. 남들이 뭐래도 상관 안한다"**

여성재단과는 2003년도 이은미, 한영애 나눔콘서트를 통해 인연이 되었죠. 여성재단은 모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여성재단과 함께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것은 NGO 활동가들을 위한 장학사업이에요. 그때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회에 다시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듯 여성재단은 일을 할 때 대단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상품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왜 공동모금회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더욱 드러나고 같은 비용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알려질 수 있다면 기업은 그쪽을 선택할 겁니다. 여성재단이 하는 일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슈 또는 아이디어를 가미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체롭게 해봅니다. 향후 10년을 위해 좋은 뼈대는 유지하고 그리고 재정비할 것은 다시 중지를 모아 고치면 되는 것이겠죠.

\* 우림건설은 2003년부터 여성활동가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을 돕는 <우림필유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여성재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이 1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돕는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더욱 멋지고, 더욱 착한 한국여성재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이상은**

이상은 가수, 2002년 5월 위촉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한 2001년 갈라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나눔행사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 그의 팬클럽도 함께 100인 기부 릴레이에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홍보영상인터뷰, 계간지 표지모델 등에도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재단을 알리기도 했다.



박어진의 좌충우돌 갱년기 보고서

# 나이 먹는 즐거움

갱년기를 계기로 조금씩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 자연스럽다.  
안 하던 것을 해보는 것, 낯설고 남편과 부모와 아이들을  
떠맡고 설거지 시대가 조금씩 지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자신의 욕구에 정직해지는 것만기. 바로 우리들의 행복한 전환기여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그만  
남아갈래



한겨레출판



저자 박어진

시시한 일상 속, 알미운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서 소란스럽게 살아온 한 원급쟁이 아집씨의 환경 지축 자서전. 지하철 독서실에 적합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의 크고 작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또 이들 단체에서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바쳐 묵묵히 일하는 활동가들과 10년을 함께 했다. 여성재단은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적재적소에 잘 나누고, 단체와 여성들이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다. 여성재단 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으며(2009년 현재, 총 715개 사업지원) 지원사업 배분에 있어서도 대상별, 지역별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해왔다.

여성재단, 고마워



## 서정화의 러브스토리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을 만나다



### 마음의 고향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 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과 정든 곳. 마음의 고향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물리적 고향과는 달라 생의 중반부에 다다라야 만나기도 하고, 공간이 아닌 시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마음의 고향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마주한다. 내가 만난 서정화는 80년대를 마음의 고향으로 둔 사람이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세대들이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자신을 희생

하면서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서정화 또한 그때 배운 사랑의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의리로 생을 살고, 일을 해온 이다. 이 글은 서정화가 설립한 여성노숙인센터의 역사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여성노동자, 여성노숙인

들과 뜨겁게 사랑한 한 여자의 러브스토리다.

### 여성+노숙을 만나기까지

인생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인연일 때가 많다. 우연한 기회, 지나가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평범한 여대생이던 서정화가 여성노숙인센터를 설립하게 되기까지도 이런 몇 개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1980년대 중반, 서정화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민주화 운동으로 학교가 떠들썩했지만 아직까지 서정화는 '공부하는 순진한 여대생'이었다. 알고 지내던 '운동하는' 선배가 서정화에게 야학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제안했고 서정화는 별 부담없이 받아들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혁명이니 개혁이니 하는 큰 이야기들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선생님(서정화)과 우리네 삶은 다르지 않냐고 이야기 했다. '서정화는 대학생'이라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들도 서정화도 이제 갓 십대를 벗어난 예쁜 청춘들이었다. 하지만 다르

다는 것이 죄의식으로 이어지던 시기였다. 그때를 계기로 서정화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얼까 고민했고 결국 현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서정화는 졸업 후 성수동 공장에 들어갔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장이 열리던 때 금속노동조합을 결성해 냈다.

당시 노동자들의 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게다가 금속 쪽은 사양산업이었고 부도와 도산이 이어졌다. 공장이 망하면 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저소득 노동자에게 노숙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한 문제였다. 노동자들과 어울렸던 서정화는 자연스레 노숙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 즈음 서울시에서 다식성인노숙센터를 개소했다. 노숙 시설들을 총괄하고 관련한 연구를 하고, 이슈를 만들고, 정책화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1999년 1월 서정화는 다식성인노숙센터에 들어가 행정과 노숙인상담 업무를 봤다. 상담을 하며 길거리에서 많은 노숙인들을 만났다. 누구 하나 구구절절한 사연 없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정화를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여성노숙인들

이었다.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노숙인 틈에 끼어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등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여성노숙인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 비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여성노숙인시설이 없었다. 여성노숙인의 열악한 환경을 실감한 서정화는 다식성인노숙센터를 그만두고 여성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들, 다른 컴퓨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2003년 3월, 용산 서계동 산동네에 열린여성센터(여성노숙인센터)를 개소했다.

서정화가 여성노숙인센터를 개소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 노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남성 노숙인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눈에 띄는데 비해 여성노숙인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었다. 남성 노숙인들을 피해 아파트 복도,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될 일도 적었고, 여성노숙인들은 비교적 자기 관리가 철저해 공공화장실에서 씻고 빨래도 해 입을기 때문에 노숙인인지 아닌지

를 한 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이 여성노숙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했고, 정부의 노숙문제 접근도 남성노숙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알게 모르게 ‘여자들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면 되지 무슨 노숙?’이라는 사람들의 선입견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노숙인센터를 개소했을 때 연락을 해오는 여성노숙인 수는 상당했고, 또 그들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센터를 찾아온 여성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헛것을 보고 싸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등 다양한 증세를 보였다.

“여성노숙인은 노숙의 원인이 달라요. 정신적 질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의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남자들은 주로 경제활동이 문제가 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불화가 많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에 오게 된 경우의 70~80%는 가정 폭력이에요.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혼해도 위자료를 못 받거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될 경우 오기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

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우울이 커지면서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죠.”

여성노숙인센터 초기, 서정화는 노숙인들의 정신 질환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하루 하루 전쟁을 치루다시피 했다. 비전문가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여성노숙인 스스로 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결국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정화는 2005년, 노정균 정신과 선생님을 센터로 초대했다. 노정균 선생님은 센터의 식구들을 만나 본 뒤 ‘병원에 있어야 할 분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매달 두 번씩 찾아와 약물치료와 정신상담을 병행해 주셨다. 정신질환 치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센터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 친정을 갖다

2003년 당시 여성노숙인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을 때라 여성노숙인센터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11월에는 여성신문에 여성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과 합

께 센터의 소식이 실렸다. 기사가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재단에서 연락을 해왔다. 여성재단의 강경희 사무총장이 모 방송국 아침프로에서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모금을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센터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센터는 여성노숙인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드롭인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당시 노숙인센터가 서울역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응급 손님의 방문이 잦았다. 경찰들이 술에 취해 바지에 오줌을 누 노숙인 여성을 데려오기도 하고, 씻을 곳이 필요하거나 하루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성노숙인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센터에서 그들 모두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였고 센터를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늘수록 기존에 센터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머무르는 노숙인 여성들을 위한 드롭인센터 설립이 필요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진행이 어려운 차였다. 서정화는 TV프로그램에서 모금한 돈으로 드롭인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방송사 사정으로 TV

모금방송은 성사되지 않았다. 강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다. 드롭인 센터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이 그랬다. 책임감을 느낀 강총장은 드롭인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러 다녔고 결국 11월, 한화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돈으로 서정화는 서계동에 드롭인 센터를 지을 수 있었다. 그것이 여성재단과의 첫 인연이었다.

이후로도 여성재단과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열린여성센터가 흥제동으로 옮겨올 때도 천만 원을 지원해주었다. 큰 힘이 됐다. 여성재단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여성재단이 여성노숙인센터에 ‘부업 보조비’ 지원을 하면서였다. 센터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풀타임 노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파트타임(‘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는데, 종이봉투 접기, 인형 눈알 붙이기 등 단순노동이다. 종이봉투 하나를 접는데 30원씩, 많이 접는 사람은 하루에 몇 백 개도 접지만 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은 하루 열 개도 채 접지 못한다. 하루에 열 개 접어봤자 300원, 용돈벌이조차 되지 않으니 자연스

레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재단에 ‘부업 보조비’ 제안서를 냈다. 하루 종일 일하면 5천원을, 만나절을 일하면 3천원을 센터 여성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여성재단은 흔쾌히 제안서를 받아들여주었다. ‘부업 보조비’를 통해 일하는 재미,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된 여성들은 자신감이 붙고 일에 익숙해지면서 서울시와 연계해 공원 청소 등 다양한 일자리를 갖게 됐다.

열린여성센터는 여성재단의 우수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서정화는 수상소감을 전하며 여성재단을 ‘친정 같은 곳’이라 표현했다. 여성재단이 여성노숙인센터에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재단에서 보여준 정서적 유대감이 정말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인 2004년도만 해도 다른 NGO들은 여성노숙인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때 서정화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해결하려 노력해준 단체가 여성재단이었다. 다른 지원 기관들에 비해 형식적인 부분이 없고 성과를 포장하려 하기보다는 여성인권 사각

지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서정화는 친정을 떠올렸다.

####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성노숙인 문제

여성노숙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가 나빠져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빈곤층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 빈곤화 문제가 제기되는 추세다. 열심히 일해 온 여성들도 노후에 빈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정화는 그 이유를 남녀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 남녀 불평등 문제의 최전선에 여성노숙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노숙 문제는 성매매, 가정 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등 온갖 여성 문제에 주거 문제까지 더해진 총체적 모순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사랑은 뜨거워서 모질고 아프다. 그녀는 오늘도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뜨겁고 모질고 아픈 사랑을 한다.



## 아이다마을로 놀러오세요

김성미경 촌장을 만나다



이런 상상을 한 번 해보자. 당신이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 베트남이어도 좋고, 필리핀이나, 혹은 중국이어도 상관없다.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피부는 물론이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이 어떤

까.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시댁 식구들과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남편?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역시 언어와 문화가 다르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남편은 때로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어쩌다 작은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부부싸움으로 번지거나 하면 나가라고 고함을 친다. 자존심이 상해 당장 나가고 싶지만 갈 데가 없다. 그런 당신에게 이리 오라고, 이리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

고, 공부도 하라고 손짓하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는가. 자, 여기 그런 마을을 소개한다. 아이다마을. '아이다'라고 해서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마을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마을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한국여성재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는 이 마을의 촌장은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다.

### 아이다 마을 탄생 조각보

그녀는 동그란 안경이 잘 어울렸다. 목소리도 예뻐다.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속 성우처럼. 그녀는 자신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그 말이 사실로 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15년 동안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일했다. 끔찍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가 몸으로 전해지는 시간을 겪으며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녀가 이주여성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건 2007년 '후안마이 사건'을 접하면서였다. 베트남결

혼이주여성 후안마이가 남편의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뒤, 2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 사건을 접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후안마이에게 지지, 지원그룹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당시 여성의 전화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수강생들과 일대 다수의 멘토링 조직을 만들었다. 마침 그 즈음 여성재단에서 '친정엄마 맺어주기'를 즐기며 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생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살리고 만나고 나누어 신나게'란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살만나신'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지리적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던 여성의전화, 부평구청, 여성문화회와 함께 했던 사업이었다.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되면서, 한국어반 수강생은 자꾸만 늘어나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한쪽에서는 수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이 놀았다. 북적북적,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워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도 제대로 놀지 못했다.

전용 공간이 절실했다. 필리핀여성자주모임 '다마얀' 회원들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식당은 아이들이 떠들어서 눈치가 보여 집에서 모이는데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있으면 불편했다.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의 욕망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팔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돈을 벌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 돌보는 공간이나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야기를 들던 그녀는 '아이쿠, 이거 빌딩 한 채가 필요하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그들의 바람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가 외국에 나가 산다면, 한 장소에 가서 정보도 공유하고, 친교도 나누고, 교육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다. 한 번 해보자, 결심이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5천만 원에 건물을 임대해주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그녀는 후원회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1년 무이자로 500만 원씩 10명에게 빌리려는 계획이었다. 한 사람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돈을 돌려주어야 할 상

황이 되면 다른 회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최선을 다해 모금을 해봤지만 모인 돈은 천 오백만원이었다. 어찌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여성재단이 떠올랐

비를 포함한 전비용을 1년간 지원해주었다. 2009년 9월에 1년 기한의 1차 사업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었다. 중도에 그만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성재단에 다시 긴급타전을 쳤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한 일이었다.

**아이디마을,  
무엇을 하는 마을이고?**

아이디마을은 다른 다문화센터처럼 여러 배움을 제공한다. 이주여성들은 이곳에서 컴퓨터를



다. 강경희 총장에게 SOS를 쳤다. 곧 답이 왔다.

생명보험협회에서 구상중인 모국센터와 비슷한 것 같으니 제안서를 내보라는 것이었다. 이주여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약속대로 보증금, 월세, 운영비, 인건비, 사업

여성재단은 다시 협회와 논의하여 2010년 10월까지 2차 사업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재단은 든든한 맏언니와 같았다. 아이디마을 전용공간마련사업은 여성재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고 NGO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성재단이기에 가능

배우고, 미디어를 배우고, 홈페이지를 배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 맺는 법도 배우고 더 나아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남편 잘 다루는 법' 까지도 배운단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수시로 와서 밥도 해먹고 모임도 가진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은 서로 멘티와 멘토가 되어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이나 정보를 나누고 자치조직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조직이 생겨나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 문제가 파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 조직 임원들이 워크숍을 열어 그 때 그 때 해결책을 강구한다.

김성미경 총장은 이주여성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리더로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공간이 바로 아이디마을이다. 이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다보고 싶다면 아이디마을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그녀들의 이야기, 이야기 조각보'란 제목의 이 책에는 그녀들이 모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남편과의 만남 등의 이야기가 직접 그린 예쁜 그림과 함께 담겨있다.

**아이디마을 총장이 꿈꾸는  
아이디마을은**

이주여성을 위한 공간이지만 선주민들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김성미경 총장이 꿈꾸는 아이디마을은 선주민들과 이주여성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사실, 선주민이니 이주여성이니 이렇게 구분짓는 자체가 어찌보면 평등하지 않은 관계의 시작이다. 선주민도 이주여성도 모두 아시아여성인데 말이다.

아이디마을이 탄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간다. 2009년이 전용공간마련에 주력한 해였다면 2010년은 이주여성들의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도 역시 재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의 기부는 주로 사회 빈곤계층을 비롯한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형식이 많았다. 아이디마을처럼 공간을 마련하거나 임파워링에 목적을 두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드문 경우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여성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이디마을이 가야할 길은 멀다. 김성미경 총장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빨리 아이디마을을 자치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꿈꾸는 아이디마을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마을.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마을. 이주 여성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마을. 모든 아시아 이주여성들에게 든든한 친절 같은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마을. 공동의 삶을 향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까르르 웃으며 살아가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는 질문이 필요 없는 마을. 이런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는가. 동그란 안경이 잘 어울리는 친절 어머니 같은 총장님을 모시고.



## 여성재단과 여성운동은 운명을 같이 하는것 같아요

이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만나다



### 〈성폭력, 법정에 서다〉 발간

...폭력에 관한 미흡한 법적 규정과 판단으로 생존자들이 수사와 공판, 진료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접합니다. 또한 법조인들의 '객관성'이 사실상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제대로 생존자들의 경험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공판은 최협의설의

영향 아래서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법담론이 얼마나 많은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성찰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고

려하였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존자의 인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잘못된 통념에 가려 들리지 않았던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법담론을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번에 성폭력 관련법의 논쟁적인 주제들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정리한 〈성폭력, 법정에 서다〉를 출간합니다.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은 현행 법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많은 논쟁의 지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법담론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폭력, 법정에 서다〉 중 머리말, '상식'이 통하는 법을 기대하며 중 발췌

이게 워낙 어려운 작업이라 날 짜를 못 맞췄어요. 여성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여성재단이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었지요. 이 책은 대중서는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법의 큰 힘인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적 책이었죠. 책 머리말에 '지난 2년 여 동안

믿음이 끈을 놓지 않고 후원해주신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재단에 감사하는 바가 크죠.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제6회 SPEAKOUT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깨달음을, '나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무지와 잘못된 성 지식을 깨닫는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살아있는 성교육 교과서를, 여자다움, 남자다움 따위의 고루한 통념에 갇혀있는 어른들에게는 비껴야 할 시간을 제시한다.'

조세영,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감독

2009년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out in Choru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상담소는 한국여성재단 자유공모사업 '우수 파트너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여성재단의 100인 기부릴레이 발대식에서 상패와 예쁜 꽃다발 그리고 상금으로 열렬한 축하를 받았지요.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힘차게 뛰었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직접 자신의 성폭력경험을 나누는 장인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서 그동안 말하기와 듣기로 참여한 많은 생존자가 지지와 공감을 통해 치유의 힘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생존자말하기대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한국여성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성폭력가해자, 사이코패스, 파렴치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2009년에도 8세 아동을 유괴하여 강간한 후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이어, 2010년에도 여중생을 강간한 후 살해한 사건과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강간한 사

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해당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주장부터, 화학적 거세에 처하자는 주장까지 가해자에게 중벌을 주어서 일벌백계하자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들끓는 여론만을 본다면, 한국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사회는 술에 취한 것이 성폭력 감형요소가 되거나, 성폭력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게 매우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아한 옷을 입으면 성폭력을 유발한다거나, 밤늦게 남자랑 같이 있는 여자의 행실이 문제라는 식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정가해자에 대해서 범죄자, 사이코패스, 파렴치범으로 보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특정가해자들을 문제 삼으면서 나는, 우리는, 한국사회는 괜찮다는 분리전략이 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사회가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공유할 것인가를 다시 질문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 내 상담소 및 시민사회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단체 오픈할 때부터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걸 명백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 생각이 참 안 바뀌는구나 생각을 하는 게, 화학적 거세에 반응을 하잖아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피해를 보고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도 이런 쳐 죽일 놈,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

라는 것을 명확히 봐야죠. 사회구조 전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인데도 개인적 문제, 의료문제로 보니까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성재단이 규모도 확장되고 기금도 많이 모아서 여성단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요. 저도 여성운동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여연대 회원수와 저희 회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재단과 여성운동은 운명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최근 여성운동 전반에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 활동가로 일하려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옛날에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거나 총여학생회에 있던 분들이 저희의 중요한 인력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의 여성운동이 죽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성운동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옛날엔 총여학생회 같은 시스템, 독서토론 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펙 쌓기에 바쁘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성운동이 활동기를 키워내는 일을 할 때가 왔다, 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 무엇보다 사람을 키워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성재단에서 인재를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주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단체들과 힘을 합해서 여성단체 인턴 활동가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대학에서 직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여성주의 학교를 해본다든지. 어쨌든 재단이 중추가 되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 코디네이팅을 해주시고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며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국여성재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여성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10년!  
한국여성재단에 무한한 사랑과 긍지를 느낍니다.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피아니스트 서혜경  
*서혜경*

서혜경 피아니스트, 2003년 4월 위촉

공연을 통한 재능나눔으로 여성재단과 함께 하고 있는 서혜경 씨는 세계적 피아니스트라는 명성에 맞게 공연수익나눔에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 한국여성재단 10주년기념 나눔음악회에서 열정적으로 연주를 해 참석한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 남자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날자(NALJA)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처러시스렌잡, 몽골 출신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민정이라고 하지요. 제가 이렇게 여성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랍니다. 저는 2008년 여성재단과 삼성생명이 지원하는 날자프로젝트에 선발되어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간 친정이었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는군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으로는 의사인 어머니, 회계사인 아버지, 언니 둘, 오빠 한 명,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러시아 유학과 출신이라 나름 엘리트 가정이었지요. 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러다 2003년,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른 몇 분들과 선을 보러 왔었어요. 당시 한국 영화나 책을 즐겨보던 탓인지, 저는 한국에서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이런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남편과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전 맞벌이를 해야만 했어요. 큰 아들 정민이는 처음엔 시어머니께 맡겼는데 나중에는 몽골 친정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 더 이상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이와 떨어져 있는 고통은 정말 컸습니다. 여건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정민이가 태어나고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몸이 아프기 시작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저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정민이가 생후 6개월 됐을 무렵, 몽골의 언니와 형부에게 보냈습니다. 정민이를 보내고 난 후, 몇날 며칠을 울며 지냈습니다. 이러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지요.

2006년도에 여성재단에서 날자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제 몽골 친구 중 한 명이 인천 이주여성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인터넷에서 여성재단을 찾아가 신청을 했지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 일곱 가정을 뽑는데 제가 그 속에 있었어요. 아, 정말 얼마나 기쁘든지. 몽골에 있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면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 해에 친정을 방문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는 참 다행한 일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한 이듬해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환 중인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성재단 덕분에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어 소원을 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해 12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살배기 둘째를 만나긴 했지만 한국에 데리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으니까요. 꿈결처럼 잠깐 보고 온 정민이가 매일매일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여성재단에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삼성생명 사회공헌팀에서 하는 소망램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며 응모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소망램프 프로그램은 소망을 한 가지씩 이루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큰 아들 정민이의 소망이 제 방을 갖는 것과 동생 정민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이의 사연이 채택되어 마침내 저희 네 식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09년 12월에는 인천의 한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 입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온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게 되기까진, 여성재단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입주금이 없어 입주를 못하고 있을 때, 여성재단이 다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지난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잘 보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더 제 마음을 잘 표현하는 한국말을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정민이 정민이, 두 아이는 어린 시절을 몽골에서 보낸 때문인지 한국어와 몽골어를 잘 합니다. 특히 정민이는 발음이 아주 좋아요. 두 아이 모두 몽골에 있는 길러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제 언니와 큰 형부를 컴퓨터에서 메신저로 만나 곧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제 경험에서 비롯되었어요. 한국에서 저와 같은 결혼이주여성 직장인 갖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제 경우만 해도, 몽골에서 간호사로 5년 정도 일했는데 이런 경력은 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건강이 계속 안 좋은 상태거든요. 원래 간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당뇨까지 겹쳐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파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 강릉에서 온 편지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

우선, 한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한국어를 보다 능숙하게 해야 하니까요. 다문화 강사나 컴퓨터 자격증과 같은 것도 따고 싶어요.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집도 있고 아이들도 다 함께 살고 있어 더욱 더 일이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몽골에도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바라는 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만 6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서툰고, 한국 음식도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말도 곧잘 하고, 몽골에 갈 때 김치를 가지고갈만큼 한국 음식도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향 몽골은 그리워요. 매년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고향엘 못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우리 이주 여성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날자프로젝트를 잘 진행해주세요. 날자프로젝트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자프로젝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여성 재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인천에서  
처리시스렌잡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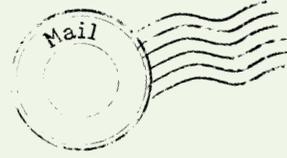
저는 대학생 아들 하나와 여고 2년생 딸을 둔 최영자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경포해수욕장과 신사임당의 본가 오죽헌이 있는 강릉이 제 고향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자랐고, 결혼해 잠깐 경기도에 가서 산 걸 제외하곤 지금까지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제가 여성재단을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실패 때문입니다. 집안 형편은 극도로 어려워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마음마저 꺾어져갔습니다. 낮에는 의류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쉬는 날에는 야간포장마차에서 설거지를 했지만 빚을 갚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건 두 아이와 월세방.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내는 건 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참 신기한 건 아이들 때문에 몹시 힘들지만 또한 아이들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아주 조그만 광고를 보았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을 위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용도 담보도 없는데 가능할까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앞에 '강릉성폭력상담소' 라는 조그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춤했습니다.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난 이걸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은 희망을 향해 난 길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단체 사람들은 따뜻하고 훌륭하고 정다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자 격려해주었습니다. 친정의 언니 오빠들하고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사람들, 내 가슴에 숨어 있는 차마 다 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자금 용자를 받아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월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조금씩 마음도 여유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귀한 건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종종 찾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건 여성재단의 창업지원금 덕분입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이런저런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창업의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 날도 상담소 사람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던 중 이러저러하면 내 가게를 하나 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여성재단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 귀가 번쩍 뜨였지요.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라니. 그래서 여성재단에 창업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도움을 받아 지금은 의류매장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이면 제 가게가 문을 엽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성재단과 상담소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그 광고를 보지 못했다면, 그 문 앞에서 망설이다 그냥 돌아섰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몹시 고통스러운 여자들이 많지만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합니다. 이혼한 여자를 보는 시선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상담소를 몰랐다면, 여성재단을 몰랐다면 주택자금융자, 학자금대출, 창업지원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섭니다. 상담소와 여성재단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제 생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여섯 평으로 시작하는 매장을 점점 넓혀가는 것과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기 위해 저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위안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또 그것이 제 삶을 바꾸어준 여성재단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 희망을 주고 꿈을 꿀 수 있게 해 준 여성재단에게 감사를 드리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강릉에서

최영자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는 재단의 모금과 지원사업에 자신의 재능을 힘껏 발휘하며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방송인, 배우, 가수, 프로게이머 등 총 14명의 홍보대사들이 딸들에게 희망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재능나눔의 꽃 '홍보대사'

# 서른아홉 나눔 레터

진양혜 홍보대사



## 차이와 차별의 차이

진양혜는 어렸을 적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다. 대학에서도 수학을 전공했다. 지금 그녀는 절제되면서도 뛰어난 언변을 뽐내는 한국 대표 아나운서로 손꼽히지만 그녀 본인은 대학시절까지만 해도 아나운서를 직업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녀가 오랜 시절 가지고 있던 꿈은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진양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외국계 회사의 인턴십 과정에 참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턴십이 아나운서로의 전향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턴십 과정 중 세계 프레젠테이션이 주어졌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죠. 그때 정말 짜릿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이야기를 이끄는 게.”

학창시절부터 말하기와 리더십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자주 들어온 그녀였다. 진양혜는 말하는 일을 고민하다 아나운서의 길을 결심했고 졸업 후 MBC 아나운서 시험에서 낙방하고 다음해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아나운서국에서 진양혜는 조금 별난 취급을 받았다. 풀 메이크업으로 출근하는 동기들과 달리 진양혜는 맨얼굴인 날이 많았다. 몸치장 대신 논쟁을 즐겼고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그런 진양혜를 두고 ‘중성적’이라는 표현이 자주 따랐다.

진양혜의 신입시절 일화다. 당시 KBS 아나운서국은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며 숙직을 하고 있었다. 여자 아나운서들은 육아와 가정을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몇몇 남자 선배 아나운서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 언쟁이 길어지던 어느 날 진양혜는 ‘그럼 여자들도 숙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녀의 발언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는 여자 선배들을 배려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감이 없었던 것’이다.

“유연한 판단을 해야 했는데



젊었을 땐 그걸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이와 차별이 어떻게 다른지 몰랐고...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렸구나 싶죠.”

진양혜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회생활에서는 자기 관리 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감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이뤄진 외할머니의 꿈

여성재단과의 인연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작가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여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걸 안 작가가 여성재단 홍보대사 일을 제안했고 진양혜는 기꺼이 수락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살아온 환경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큰 것 같아요. 왜, 우리 때는 여학생이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회장은 꼭 남자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삶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똑똑하고 재능 많은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게.”

진양혜가 말한 안타까움이란 무얼까. 이야기는 진양혜의 외할머니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양혜의 외할머니는 충북 양반집에 시집와 진양혜의 어머니를 낳았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외할머니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딸의 손을 이끌고 서울로 상경했다. 샅바느질로 생



진양혜손범수기금  
2003년 5월 집중모금캠페인에서 진양혜씨는 “씨앗을 하나 뿌린다는 느낌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했다. 앞으로 기금을 잘 키워서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기금을 설치했다.

# ‘말’ 때문에 사랑받는 여자

최광기 홍보대사

계를 꾸렸지만 딸의 공부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여자도 남자와 다르지 않다. 여자도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딸에게 자신과는 다른 삶을 주고픈 외할머니의 바람이었다. 몇 년 뒤 어머니는 약학을 전공해 약사가 되었고 결혼해 진양혜 남매를 낳았다.

진양혜의 어머니 또한 남매를 강하게 키우고자 했다. 특히나 딸들이 인습과 관습에서 벗어나 당당한 여성으로, 제 몫을 하는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가르쳤다. 본인도 당당하고 능력있는 여성으로 살았지만 시댁에는 늘 죄스러워했다. ‘안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양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며 ‘여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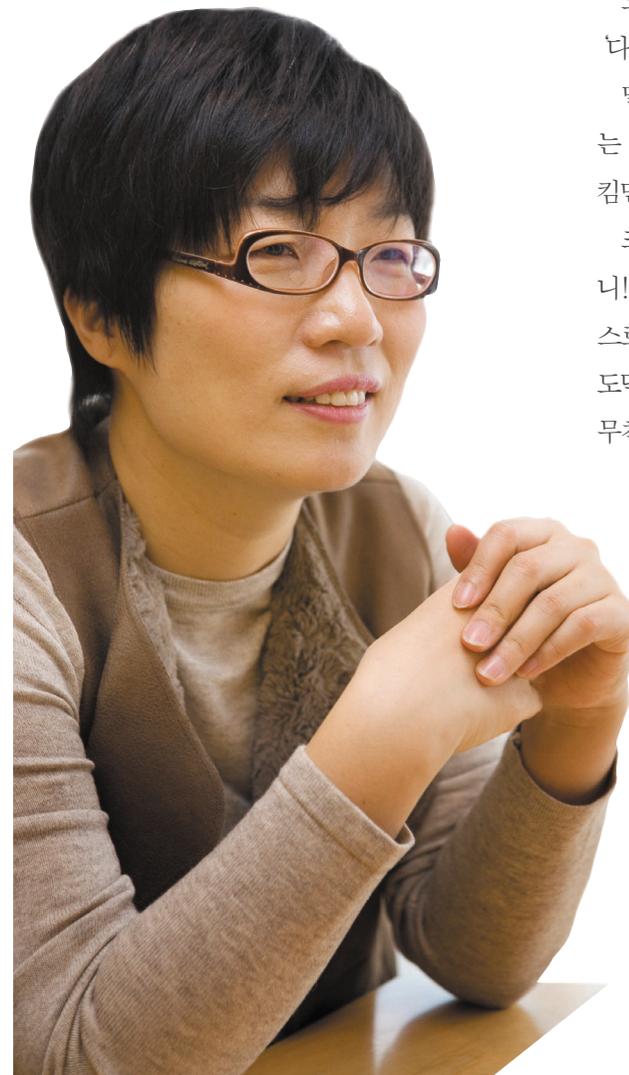
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는 했다.

진양혜가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여성재단의 홍보대사를 수락한 것은 평소 가지고 있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싶은 바람을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지금 진양혜는 남편인 손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여성재단의 부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재단에 <진양혜손범수 기금>을 설치했으며 매년 부부가 함께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다. 책 <진양혜의 서른아홉 러브레터>의 인세를 기부했고, 여성재단의 창립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깊이 있는 진행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녀가 아나운서가 되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폭 넓은 독서를 권합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취재해서 앵커멘트를 쓰는 능력, 국제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해야죠.”

돈을 털 벌더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진양혜 아나운서. 두 아이의 엄마로, 여성으로, 아나운서로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녀를 앞으로도 여성재단 행사에게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노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다언삭궁이니 불여수중이라.’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리는 법이니, 속에 가만히 두고 지킴만 못하다.

크으,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구나! 돌덩이 같은 눈꺼풀을 가까이 스스로 들어 올리며 읽어야 했던 도덕경에서, 유일하게 가슴에 사무친 구절이었다. 내 말실수의 역사가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이라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을 말들로 머리를 쥐어뜯고 이마를 때리던 후회의 순간들, 정말 셀 수 없이 많

았다. 말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사람은 나쁜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못 해서 미움 받고 괴로워하고 궁지에 몰렸다. 그래서 입방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 길지 않은 인생에서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말 한마디 잘 해서 사랑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돈 주고도 못 살 신임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소통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말’이라는 마술이다.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내뱉기는 쉬워도 절대 주워 담을 수는 말, 참 어렵다. 그런데 여기 ‘말’로 먹고사는 여자가 있다. 말로 사람들

을 웃기고, 말로 유명해지고, 말로 2004년 촛불집회를 뒤흔들고, 말로 수만 명의 인파를 사로잡았던, '국민사회자' 최광기.

국민사회자로서 데뷔는 언제인가요?

제가 촛불집회에서 국민사회자라는 큰 이름을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사랑을 받았던 건 1995년 민주노총 전야제 때였어요. 거기서 8시간을 사회를 봤어요. 전국에서 노동자들 3~4만 명이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을 가득 메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웬 튀는 여자가 나와서 입담을 펼친 거죠. 멘트라는 것도 없었어요. 순서만 있지. 다 애드리브로 한 거였는데 진짜 재밌었나봐요. 하루 아침에 제가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강렬하게 남긴 사건이었어요. 그게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서 짹짹한 MC생활이 시작됐죠.

그 당시 여자가 집회에서 사회 보는 일이 자주 있었나요?

아뇨. 매우 드물었죠. 거의 없었

다고 보는 편이 나아요. 말이라는 건 권력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힘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주도하죠. 그게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대표하고 주류인 것처럼. 그런 게 중심이었던 세상에 여자가,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행사 끝나고 그 당시 '말'이라는 잡지의 첫머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씹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신선하다, 여성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평가가 엇갈렸죠.

현재 두 아이의 어머니신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좌절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 때문인가요?

여자라서 행복하고 여자라서 불행한 게 있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되었어요. 페미니즘 정신이 먼저 있었다가 보다는 생활형 운동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주소 쓰기, 본적 외우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 그 본적 외우느라고 고생을 했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냈더니 그 본적으로는 내 호적 등본 하나도 못 떼고 남편 본적을 대라는 거예요. 그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건 아니잖아?' 아이를 낳을 때도 마 찬가지였어요. 10달 동안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조심하고 신중하고, 태교까지 하면서 배 아파서 낳았더니 나만 빼고 모두가 '안 씨' (남편 성)인 거예요. 그 때의 그 낭패감이란...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호주제 폐지 운동도 같이 했죠.

그런 계기들로 자연스럽게 여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월경페스티벌 등 여성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표인사이시잖아요. '미래의 여성 지도자상' 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여성운동을 하면서 최광기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많은 진보적인 여자선배들이 저를 슬슬 주목하게 된 거죠. 그 때 언니들을 만나서 참 많이 달라졌어요. MC로서 잘 나가긴 했지만 점점 더 내가 고갈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쁘게만 일하다보니,

몸도 많이 상했어요. 그 때 언니들의 적극적인 돌봄을 잇을 수가 없어요. 그 품 안에 들어가면서 제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광기를 발견한 거죠.

'언니' 들과의 만남이 최광기님에게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성재단 홍보대사가 된 계기도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홍보대사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여성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2006년 5월 캠페인에서였지만 이미 5~6년 전부터 여성재단 행사 진행을 도맡아왔고, 제 처녀작 <밥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의 인세나눔을 하면서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많고 많은 재단과 기관들 중에서 왜 하필 여성재단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의 최광기를 만든 것은 소외된 여성들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상계동 철거민지역 어머니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어머니들에게 10년간 한글을 가르치고 어머니들과 함께 고단한 삶을 나누던 그 시절이 지금에 이르게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줄곧 저는 가슴에 와 닿는 솔직한 말의 힘, 희망의 말을 배우면서 여성들과 함께 성장하고 힘을 얻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성재단이 더 이상 지원할 데가 없어서 외국으로 지원할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이렇게 하하(최광기 대사님 특유의 웃음치료식 웃음) 웃을 수 있는 그 날까지, 한국여성재단 화이팅!

올 해로 여성재단이 10년을 맞았습니다. 여성재단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10년이 되었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저를 참 대견하게 생각하는 건 상계동 어머니 학교에서 10년을 일했다는 거죠. 10년은 해야 결과가 나오고, 10년은 해야 내가 뭘 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큰 힘과 면역력이 생겨요. 이후 10년도 중요하겠죠. 여성재단이 걸어가는 발걸음, 그 길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기부자의 70%가 여성인데 그 기부가 여성한테 쓰

이진 않잖아요. 고시라든지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에게 녹록치 않은 세상이지요. 더 많은 세상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구요. 그 관심을 모아 나가는데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광기님에게 힘을 준 말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직접 쓰신 책의 제목처럼, 최광기님에게 '밥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 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그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해라' 는 말이 참 힘이 됐어요. 무대에 서거나 방송을 하다가 '선생님이 있어서, 최광기씨가 있어서 참 힘이 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이 무대와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해요. 말은 절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을 때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 새침한 그녀와 마주치네, 오 한마디 인사도 못한다네

양영아 이승철 팬클럽 <새침떼기>회장

## 팬클럽 이름이

### 왜 '새침떼기' 인 이유

이승철님 노래 중에 '그녀는 새침떼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죠. 팬클럽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회원들이 다들 새침하고 귀여웠다고 하더라구요(웃음). 공연 중에 오빠가 기부를 위한 홍보 멘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CD 판매량이 달라져요. 공연 중간에 CD 판매금액이 기부를 위해 쓰인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새침떼기 소개를 해주세요. 요즘은 "아우 20몇 년 전엔 정말 새침하고 귀여웠는데 이젠 민망



해서 팬클럽 소개할 때 새침떼기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러기가 일쑤죠. 심장병, 소아암, 미숙아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프로젝트도 후원하고 있어요. 먹는 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특히 케냐 쪽을 후원하는 있는데 우물 파이프에 '이승철과 새침떼기'가 새겨져 있어요. 그럴 땐 뿌듯하죠.

## 여성재단과의 인연

2008년부터 직접 몸을 쓰는 봉사활동 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 곳이나 가서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군데가 넘는 단체를 찾아갔는데 다들 거부하셨어요. 워낙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 봐요. 생색 내기용. 점수따기용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세 번 오다가 오지 않을 거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구요. 그리고 유아교육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나

고 물어보는데 당시 우리 중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원활동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환상이 많이 깨졌어요. 자원봉사 하겠다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는 중에 여성재단의 도움을 받았죠. 우리 회원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당일로 가능하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는데 딱 맞춤형 단체를 소개해주셨죠. 애란원이 바로 그곳이에요. 애란원은 싱글맘들이 아기를 낳아 6개월간 머무르다 가는 곳인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고작 청소 정도예요. 지속적으로 갓나기를 돌볼 수도 없고 산모를 돌볼 수도 없으니 청소라도 해야지요. 하지만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애란원에 가면서 하게 된 생각은, 마지못해서라도 착한 일을 하는 건 좋은 거다, 라는 거예요(웃음). 땀에 흠뻑 젖어 청소를 하다보면 정말 내가 집청소 이렇게 했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난다니까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애란원 갔다면 그간 나쁜 것 한 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애란원에서도 저희 많이 예뻐해요(웃음).



## 100인 기부 릴레이

팬클럽이 100인 기부 릴레이를 주도하고, 이승철님은 이끔이로 홍보대사가 되었죠. 처음에 오빠는 관심이 없었는데 팬클럽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재단 식구들이 항상 케익, 쿠키, 카드 넣어갖고 티켓 끊어서 공연 보러 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 거 같아요. 이 단체는 돈만 요구하는 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연예인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단체도 많거든요. 첨엔 제대로 된 재단인가, 팬클럽인가 했는데 진정으로 여성을 위해 일을 하는 단체라는 걸 알게 된 거 같아요. 선진국일수록 재단의 힘이 크고 그 재단 덕분에 많은 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홍보물도 꾸준히 받아보고 인연이 이어지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여성 재단의 힘을 실감하고 있죠. 저희 팬클럽엔 85%가 여자예요. 앞으로 우리 회원들도 여성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 완주를 했어요. 모든 인연을 총동원해서 정말 열

심히 했죠. 오빠가 홍보대산데 10위 안에 못 들어면 안 되잖아요. (웃음)

### 오빠와 함께 변해가요

옛날엔 팬클럽이 정모(정기모임)라는 걸 했는데 자원활동 시작하면서 정모는 사라졌어요. 자원활동 하고 뒷풀이 하는 게 정모가 되었죠. 팬클럽만 변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오빠도 요즘은 하나라도 더 팬들에게 뭘 남기고 싶어해요. 술 마시고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승철이란 사람 때문에 새로운, 혹은 보람있는 뭔가를 알고 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팬과 스타가 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신입 VIP 행사 때도 와인 칼럼니스트 모시고 강좌 열고, 오빠 생일 파티 때도 마술 관람하고, 스타와 팬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는 그 세월을 새침뻬기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재단도 여성단체 팬들과 함께 나이들고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창립부터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모금방송과 바자회, 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해왔다. 모금방송에 기부전화를 받고, 문화나눔 티켓 배분을 돕고, 다문화가정의 자녀학습을 돕는 등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속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했다. 특히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은 여성재단활동을 통해 여성, 기부, 진로선택 등 활동 그 이상의 무엇을 얻는 기회도 되었다고 말한다. 지난 8월, 5명의 여학생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 여성재단의 딸들

# 여성재단, 미래세대가 말한다

## 질문

- 1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활동을 했나요?
- 2 활동 중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 3 활동 전에도 여성재단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 4 여성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5 여성재단에서 10,20대를 위해 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나요?
- 6 기부와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7 여성재단이 10년이 됐어요. 축하 인사를 해주신다면?

## 참석자

최가영(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학년), 이선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송지애(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이보람(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4학년), 손유정(홍익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 진행 및 정리

금강산, 이빛나



질 좋은 잉크 여성재단

최가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학년: 문화나눔 서포터즈, 미래포럼 스태프

1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여성재단 문화나눔 서포터즈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문화나눔은 여성 공익활동가와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서포터즈로 발탁되어 6개월간 공연 수혜자와 연락하고 공연 티켓을 관리 및 배부하는 일했어요. 학교 게시판의 많은 광고 중 여성재단의 광고가 마음을 끌었던 건 예전에 학교 교수님과 함께 한 여성학 세미나의 영향이지 싶어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여성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색다른 경험이었던거거든요. 여성재단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2 문화나눔은 공연 기획사 쪽에서 티켓을 지원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볼 수 있는 공연이 한정되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재단에서 저희 서포터즈들에게 수혜대상과 함께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지 여쭙봐 주시더라고요. 서포터즈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라틴 미술 전시회를 선정했고 지원을 받아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같이 다녀왔어요. 같이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한 친구는, 유명한 연극의 티켓을 여성재단에 지원해달라고 공연 기획사측에 직접 프로포절을 내기도 했어요. 결국 거절당했지만 함께 준비

하고, 저희가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수혜대상들이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기쁘게 봐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3 문화나눔 서포터즈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여성재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친구들에게 여성재단에서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열이면 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요. 젊은 세대들이 프로젝트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

4 잉크요. 한국 여성사를 책으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년필 역할을 해주신다면 여성재단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잉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구석구석 안 닿는 데 없는 여성재단의 손길을 보며 여성재단은 참 질 좋은 잉크구나, 생각했어요.

5 지금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건 등록금 문제가 아닐까요. 친구들을 보면 턱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출을 받으라고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는데 언제 등록금까지 갚아요. 저소득 또는 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저리 등록금 대출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대학에는 여성휴게실이라고 해서 생리 중이거나 아픈, 또는 피곤한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여유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여성재단에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지 않더라도 재능기부라고 해서 물질적 기부대신 재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네이버 콩 기부라고 해서 이용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학생이라 나눌 것이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이버 콩으로 여성재단에 기부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콩 기부를 했더니 얼마 전 여성재단 계간지 기부자 목록에 이름이 실렸는데 그걸 보면서 속스러우면서도 참 기뻐요.

7 축하드려요. 사람이 십 년을 살면 초등학교 나이 같아요. 열 살짜리 애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성재단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재단의 성장기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파이팅!



묵묵히 옆을 지켜준다는 것

이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실습

1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실습을 나가야 했어요. 평소 노인과 여성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된 단체를 찾다가 여성재단을 알게 됐고요. 지금 여성재단에서 한 달째 실습을 하고 있어요.

2 다문화 이슈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여성재단에서 실습하면서 사업을 들여다보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생겼어요. 다른 여성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재단에서 단순히 업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공부, 인생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습이 만족스러워요.

3 잘 몰랐고요.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알게 됐어요.

4 여성재단은 동행자라고 생각해요. 파트너 단체들, 수혜자들과 함께 걷는 사람. 제가 지켜본 여성재단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기보다는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가는 동행자예요.

5 저는 대학생이 아니라서 (웃음). 성평등사업중 여성과 남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성평등사업이 생겨나고 젊은 세대들이 일찍부터 그런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6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기부' 라는 단어가 수혜자를 돕는 일방적인 느낌인데 비해 '나눔' 은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문화적 색채가 짙은 것 같아요. 나눔문화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7 여성재단의 네트워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여성재단과 저도 인연을 맺

게 되었네요.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10년 축하드려요!



모두 하나 되어 강강술래

송지애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위드멘토 날자, 실습

1 교수님이 여성재단 위드멘토를 추천해주셨어요. 위드멘토는 다문화 자녀와 저 같은 대학생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프로젝트예요. 멘토는 멘티의 학습을 지원하면서 멘티가 또래 집단 내 통합과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요, 멘티와의 관계를 통해 다문화 이해 및 평등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죠. 위드멘토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여성재단에서 하는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프로젝트 날자에도 참여했어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강의를 몇 차례 듣고, 다문화가정 서른네 가구와 함께 태국을 다녀왔고요. 그때 경험을 발판 삼아 올해 여성재단에서 실습까지 했습니다.

2 날자 프로젝트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막상 태국에 가니까 결혼이주여성친정 식구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들, 여성재단 스태프들도 모두 하나가 되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

도 마음으로 통했던 경험이었어요.

3 교수님께 소개받기 전까지 여성재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창원에 살거든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서울에 비해 낮다 보니 더욱 그럴 거예요. 지역에도 홍보가 되면 좋겠어요.

4 강강술래? 여성재단 사업들을 보면 다양한 성별, 다양한 지역, 다양한 세대가 모두 모여 하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강강술래!

5 여대생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성차별문제, 이성문제, 여자총학생회 설립 문제 등 여학생들이 벌이는 운동을 지원해주세요.

6 기부와 나눔을 봤을 때 기부는 돈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나눔은 그것보다 소박하고 주고받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재능을 주고,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얻는 다던가. 상호교환의 느낌?

7 저는 제가 여성재단의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지방에 살아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여성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세상을 보는 눈도 키웠어요. 여성재단이 건재해서 저처럼 재단의 수혜를 받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

이보람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4학년: 실습

1 사회복지 실습을 여성센터에서 했었어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행정적으로 세팅된 기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고 여러 단체를 기웃거리던 중 여성재단을 발견했어요.

2 제가 실습할 당시에 여성재단에서 저소득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로 전화 상담을 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12장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는 것을 못하세요.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청서를 대신 써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정보력과 매체 이용 경험을 가진 분들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만약 재단이 여유가 생기면 이런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3 저희 학교 교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교수님이 여성재단 행사와 워크숍을 학생들에게 자주 광고해 주시거든요. 여성재단 배지를 달고 게시기도 하고

요. 교수님 보면서 사람으로도 홍보가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여성재단'.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거리감을 느꼈어요. 내가 여자인대도요. 굉장히 크고 딱딱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습하며 만난 여성재단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어요.

4 여성재단은 물결이요. 여성재단은 파트너 단체와, 다른 여성들과 관계맺기를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움직였죠. 왜, 물결도 한쪽만 흐르지는 않잖아요. 여성재단이 여성 단체들과 손을 잡고 함께 흘렀던 10년이다, 해서 물결이구요. 앞으로 그 물결이 더욱 더 힘차고 거세지기를 바랍니다.

5 10대, 20대 여성들의 권리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던데 맥락도 없고 설명과 근거가 남성주의적이잖아요. 초고도비만여성 등 여성건강지원사업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6 예전에 사회복지 특강에서 '결언乞言' 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즉 '사회복지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기부와 나눔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7 축하드립니다! 20년사 할 때 또 빌게요.



### 긍정적 에너지 지원하는 파랑새

손유정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문화나눔 서포터즈

1 NGO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문화나눔 서포터즈 모집 광고를 봤어요. 언어나 개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문화 공연을 나누면서 (수혜자들을) 만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2 공연이 끝나면 공연 수혜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의 표현을 덧붙 해주세요. 그럴 때 뿌듯하고 감사하죠. 아동복지관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공연 보고 한층 더 밝아진 아이들 표정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요. 문화나눔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3 학교가 홍대라 막연하게 홍대 근처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4 파랑새. 파랑새의 밝고 희망찬 이미지. 여성재단에서는 물적인 지원뿐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를 지원해주세요. 희망과 꿈을 전파한달까(웃음). 직급 나이와 관계없이 편하게 서로 보듬으며 가는 모습도 보기가 좋고요.

5 여성문제나 여성이슈를 가지고 교육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또,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매달 조금씩 인권단체에 후원을 하는데, 후원된 모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수혜자들은 어떤 피드백을 보내오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깐 힘이 빠졌거든요. 여성재단은 계간지를 통해 잘 해오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어도 될 것 같아요.

6 실천하기 전에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죠. 실천하고 나면 그리 큰 일이 아닌대도요.

7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10년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여성재단이 되어주세요.~



사진을 통해 그만의 질문을 던지는 조세현 작가는 <천사들의 편지>으로 국내 입양문화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2009년 이해선 사진문화상을 수상, 현재 <여성중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국여성재단 계간지 <딸들에게 희망을>표지촬영을 재능나눔하고 있다. 포토에세이 <조세현의 얼굴> 등 펴냄.



## 섬에 피어난 국화

지난주 남해안 섬을 카메라와 함께 여행을 했다.  
새벽 잠을 설치고 안개 낀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신안군 어느 여객선 터미널이었다.  
샌드위치로 아침식사를 때우며 먼길을 달려 온 작가의 눈에 비친 작은 선착장은 비록 낯설기는 하지만 한편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란 생각에 피곤도 잊고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거기서부터 다시 뱃길로 30분이니까 그리 멀다고는 할 수 없는 곳, 압해도에서 다시 승용차를 타고 30분정도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 도착한 곳은, 이름처럼 예쁜 자은도라는 작은 섬마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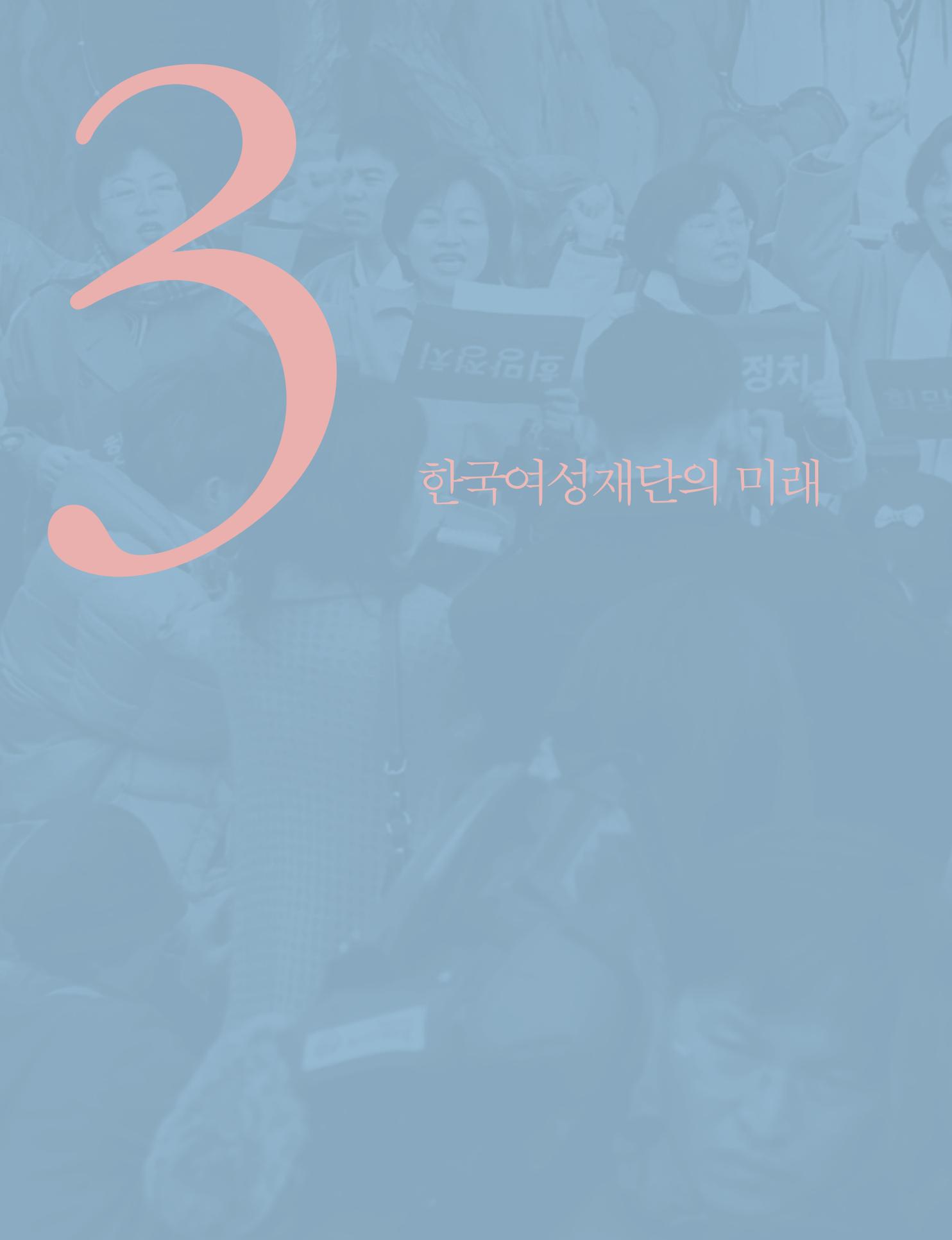
가을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황금빛 들녘은 짙은 바다냄새와 잘 어울려 육지에서 온 이방인에게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였다. 섬의 곳곳에 활짝 피어난 국화꽃 향기는 자은도의 가을과 무척 잘 어울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화꽃만큼이나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다. 지난 8월에 한국여성재단의 날자프로젝트로 호치민 고향방문을 함께 했던 대선이네 가족을 다시 만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훌쩍 자란 대선이의 모습은 그 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이었다.  
막 교회에서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우리는 자은도의 뒷편 백사장으로 산책을 갔었는데, 팔순의 할아



버지와 다섯살 난 대선이는 조그만 게를 잡는다고 마치 친구처럼 다정스러워 보였다.  
자은도에서 만난 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에서 세계와 하나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듯 했다.  
대선이 엄마(응웬미토)는 5년 전 호치민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이 작은섬에만 해도 대선이 엄마와 같은 이주여성들이 열 명 이상 모여 살고 있다.  
농부의 아내로, 어부의 아내로,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의 아내로, 또 며느리와 엄마의 역할로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둥지에서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었다.

저녁식사를 청하는 그들의 호의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서해의 뱃길은 유난히 석양이 아름다웠다.  
내 다시 겨울이 지나 봄이오면 이 뱃길을 따라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오늘 촬영한 가족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서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서울이 왜 이리 멀리만 느껴지는 지…….



## 한국여성재단의 미래

한국여성재단은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운 각오로 '평등과 상생의 미래사회 구축'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평등사회를 일구는 여성들의 버팀목, 대안적 돌봄사회 건설, 참여와 변화의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좀 더 기부자들에게 다가가고 여성운동 현장과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길목에서 여성재단이 지향하고자하는 포부, 함께 했던 활동가와 파트너단체, 선배들이 기대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모습을 그려본다.

한국여성재단의 미래

# 한국여성재단과 여성운동의 미래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 글을 쓰는 지금, 재단 10년차에 이사장직을 맡게 된 창립 1.5세대 주자에게는 재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단이 어떤 역사를 쓰고 싶은지, 한국과 세계의 여성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지와 같은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단의 지난 10년은 열심히 모금해서 여성단체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단체들은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의 존재 자체를 든든해 했고, 사업지원금에 약간의 단체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재단의 배분정책, 활동가들이 설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재단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안, 비례대표 여성국회의원 후보 할당제(2003)와 호주제 폐지(2005)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효과가 가시화되기는 어렵지만 소외층 여성들의 삶에 희망과 힘을 주는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왔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면서 여성재단은 여러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여성단체들의 고유 사업들, 그리고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강화 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립 10주년이 가까워오면서 재단과 단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져서 여성단체들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시각이 보수화하고 여성운동의 활력이 이전 같지 못한 요즈음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인가' 라는 재단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당연히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들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게 합니다.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여성들의 염원이고 여성운동의 주된 목표였던 법제도의 평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평등제도화는 더 이상 여성운동의 아젠다가 아니라 정책 영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일차 목표가 성취된 후 여성단체들은 새로운 운동적 이슈와 목표를 설정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제도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졌을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2005년 이후 단체들은 이전처럼 단결하여 힘을 모으는 공통된 여성운동 이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여성운동의 비전과 추진방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각 단체가 자신들의 고유 활동에 집중하자는 데에 합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정이든 단체들의 힘을 운집할 수 있는 운동의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성운동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들은 이슈들이 입법화되고 정책화되면서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지역에서는 새로 단체가 꾸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기회가 그렇듯이 기회는 위협을 수반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 변질의 위협, 그리고 만약 정책기조가 바뀌어 정부지원이 끊길 때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에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운동단체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이 활력을 상실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정보화,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쟁시대를 사는 청년층이 더 이상 여성단체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계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조직과 운동 방식이 젊은 층에게 희망과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일부 활동가들의 피로현상과 차세대 활동가 충원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성단체들은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재정과 활동가 재생산 문제, 그리고 운동적 이슈의 빈곤까지 겹쳐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여성운동을 위해 단체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조직구조와 활동방식이 아직도 유효한가,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을 찾을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여성운동을 계승하도록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단체들의 지나간 10년, 20년 역사 이후에 전환지점을 만들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 역시 여성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에는 기회 요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과제를 수입하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해오던 여성단체들이 맞게 된 재정 위기는 시민단체로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가 국가에 대한 단체들의 재정적 의존관계 내지 총체적 종속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장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여성단체들이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운동이 평등제도화라는 단기적 혹은 도구적 목표를 성취한 이후 숨고르기를 하면서 여성운동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성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실질적인 평등사회, 모두가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인 물음과 토론을 할 시기입니다. 이는 여성운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더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여성들의 시각으로 추진하는 사회개혁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여성운동을 위해 단체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조직구조와 활동방식이 아직도 유효한가,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을 찾을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여성운동을 계승하도록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단체들의 지나간 10년, 20년 역사 이후에 전환지점을 만들 기회입니다.

재단은 여성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의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뒷바라지할 것입니다.

우선, 재단은 여성단체들이 광범위한 여성계 지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여성운동의 방향을 찾는 일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들의 활성화와 한국 여성운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재단의 미래 사업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여성단체들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자생하는 신생단체와 그들 방식의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운동이 중앙집중적, 대규모 단체 주도적, 엘리트 중심적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여성운동의 지역화, 당사자 운동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운동의 이슈로 제기하는 지역 현장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한국 여성운동의 국제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일국가, 단일민족의 신화를 벗어나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는 일, 국내와 국외 여성들의 문제를 아우르고 세계적 이슈를 반영하는 세계적 사회개혁운동에 이르는 일, 세계속에서 한국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일 등 여성운동의 국제화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단은 여성 활동가들이 국제적 안목과 역량을 갖도록 하고 한국 여성운동이 세계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단은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공익재단에게 늘 부족한 것이 사업비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예산의 25~30%는 개인들의 지속적인 기부가 바람직인데 현재는 연간 사업비에서 개인기부금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일반 시민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변화입니다. 재단의 '100인 기부 릴레이'에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재단이 지원한 사업의 수혜자였던 여성들이 기부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돈, 노력,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재단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대상의 모금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이 관련되지 않은 사회문제가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여성 관련 정책이며, 제도와 정책 혹은 인식의 변화를 통한 긍정적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여성들의 집합적 활동은 광의의 여성운동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단체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성재단의 역할과 기대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여성재단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성재단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운동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지난 10년 동안 여성재단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래 글은 여성재단을 사랑한 한 소년의 의견입니다. 어려서부터 여성재단의 후원자였던 중학교 3학년 소년의 평가와 바람이 여성재단에 귀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소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아직 한국에 존재하는 남녀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그를 위해 여성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등 다양한 지원을 기획, 추진합니다. 또한 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딸들에게 희망을’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의 여성 뿐 아니라 해외의 여성분들까지도 돕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분의 친정 방문길을 동행하여 준 것)

현대 사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성재단만큼 이를 해결해내고 공평한 한국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성별 차이로 인하여 고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여성재단에게 바라는 저의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있는 여성재단이니깐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 여성분들의 친정 방문길에 동행하여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여성들을 돕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에서 아직 존재하는 남녀 차별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세계의 한국여성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재단에서는 재능이 있는 여성분을 찾아 그들을 후원해 드리고 그들의 성공을 돕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성공을 도와 여성분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돕고 계시지요. 이러한 작업에는 단지 여성을 돕는다는 취지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까지 갖출 수 있어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 소년이 말하는 성평등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재단은 지금까지의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어렵게만 느끼던 많은 것들에 가능성을 심어주었으며, 성평등 사회를 조성해 가는데 큰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진행되는 100인 기부 릴레이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감으로써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기부할 수 있다는 나눔의 저변 확대, 기부의 평등성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나아가 재단이 지금껏 노력해온 목표인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기부 방식과 보다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실천하여 기부문화 확산뿐 아니라 모금액 확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기금들이 만들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재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성재단’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이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사업의 지평을 넓혀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재단이 해왔던 지난 10년 간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 현장에서 '희망'을 기획하라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 ‘딸들에게 희망을’

여성재단의 이 슬로건은 늘 반갑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일한다는 것은 경건하고 경이로운 일이다. 힘없는 자, 일로 지친 자, 가난으로 무력해진 자, 문화적 경멸을 견뎌야 하는 자... 세상에 희망을 빼앗는 수많은 사회적 힘들과 맞서 견고한 삶을 이어나가려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 이런 여성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자리를 마련해주려 애써 온 한국여성 재단의 지난 10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재단의 향후 10년은 어떤 모습일까? 배분위원의 한사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켜 본 한국여성재단의 특징은 허술한 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여성재단의 강점은 ‘정직한’ 여성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재단 스태프들의 완벽에 가까운 서류 준비, 공정한 판단과 섬세한 진행에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일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과 전문성 덕택에 가능해진 것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스태프들의 열색을 걱정하며 우스갯소리로 ‘스스로의 삶에도 희망을 주면서’ 천천히 일하라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절차적 완벽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제의 발굴이다. 매년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의제를 발굴해왔지만, ‘평등과 상생의 미래 사회 구축’이라는 재단의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를 읽고 개입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시장의 지배’가 가속화되며, 삶의 불안정성과 피폐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간의 전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불안, 취약한 상황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 줄여나가거나 최소화하는 복지 국가의 이상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 영역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지만 전통적인 성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삶의 모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은 많아졌지만 일자리나 사회적 인정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젊은 여성들의 문제나, 경험과 지혜는 많으나 연령주의라는 차별 때문에 사회적 자리를 얻지 못하는 나이 든 여성들의 문제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다.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로 호명되지만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정서적 ‘무덤’이 바로 한국 여성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과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그래서 여성재단의 향후 ‘희망의 기획’은 사무실 밖의 다양한 현장을 발굴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한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맥락에 몸을 담아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기획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기쁨과 열정을 자원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며 사회를 변화시켜내는 여성들 또한 많다.

향후 여성재단의 10년은 소외계층으로 범주화된 여성들의 ‘동반자’로 머무는데 만족하지 말고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삶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여성들의 현장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한다. ‘현장’은 그만큼 강렬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합리적 지성과 열정에 느낌을 개입시켜 만들어내는 여성재단과 새로운 현장들의 만남은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동할 힘도 커지게 된다. 여성재단의 스태프들과 모험적인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신명나는 여성들의 사회적 장을 기대해 본다.

# 한국여성재단 10년을 내다보며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재단 이사



## 21세기를 여는 한국여성재단의 창립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담론과 희망이 풍성하였다. 민주화시대를 거쳐 평등과 평화, 다양성과 통합의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21세기 키워드로 3F(Feeling, Female, Fiction)가 시대정신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접쳐졌다.

여성계에서도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초대 이사장, 지은희 전 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연숙 전 여협 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성평등사회 조성, 여성복지, 여성리더십 함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채용목표제, 여성비례대표 확대, 군가산점 위헌 판결 등 여성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이루는데 여성단체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처럼 여성단체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집단이지만 여성단체의 물질, 인적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특히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여성재단은 설립 이후 기부자들과 여성단체 활동을 연계하는 중간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지난 10년의 성과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여성재단의 존재는 여성(단체)들에게 기댈 언덕 그 자체였다. 다소 아쉬운 점은 모금목표액(1,000억)을 설정해 놓았지만 다양한 기부자 개발과 관리가 부진했다. 이런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재단에 세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 '딸·아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캠페인 전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수준은 세계 13위, 성격차 지수는 105위이다. 한국사회가 압축 성장을 했지만 경제 수준과 성평등 수준의 갭이 지나치게 크다.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현재 성평등 단계는 상징적인 여성참여 단계에서 기회의 균등으로 발전했지만 아직 과정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의 균등마저 되돌리려는 역풍이 불고 있다. 99년에 폐지된 군가산점 부활 시도가 그 예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보편적인 성평등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성격차를 고착화하느냐 하는 갈림길인 듯 싶다.

지난 10년간 여성운동, 여성재단의 성과를 토대로 갈림길에서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간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 이제 앞으로 여성재단 10년은 '딸·아들에게 평등한 사회를'이라는 제 2의 캠페인을 시작할 때이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성의 의식변화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재단이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해 남성교육 특히 청소년 대상의 성평등 교육과 문화활동 기획사업을 해나가면 좋겠다.

##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및 새로운 여성운동 지원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여성운동에 입문하는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를 성평등하게 디자인하는 공익활동가로 전망을 갖으려면 지속가능한 근무조건, 교육·장학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주의 인문학,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변화 읽기, 새로운 여성이슈 학습 지원, 소진한 활동가를 위한 쉼과 치유, 국내외 연수를 포함해 더 많은 장학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구조 변화,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기후변화와 식량, 고령화, 개발 등 전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슈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젠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보수정권의 등장과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젠더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젠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여성운동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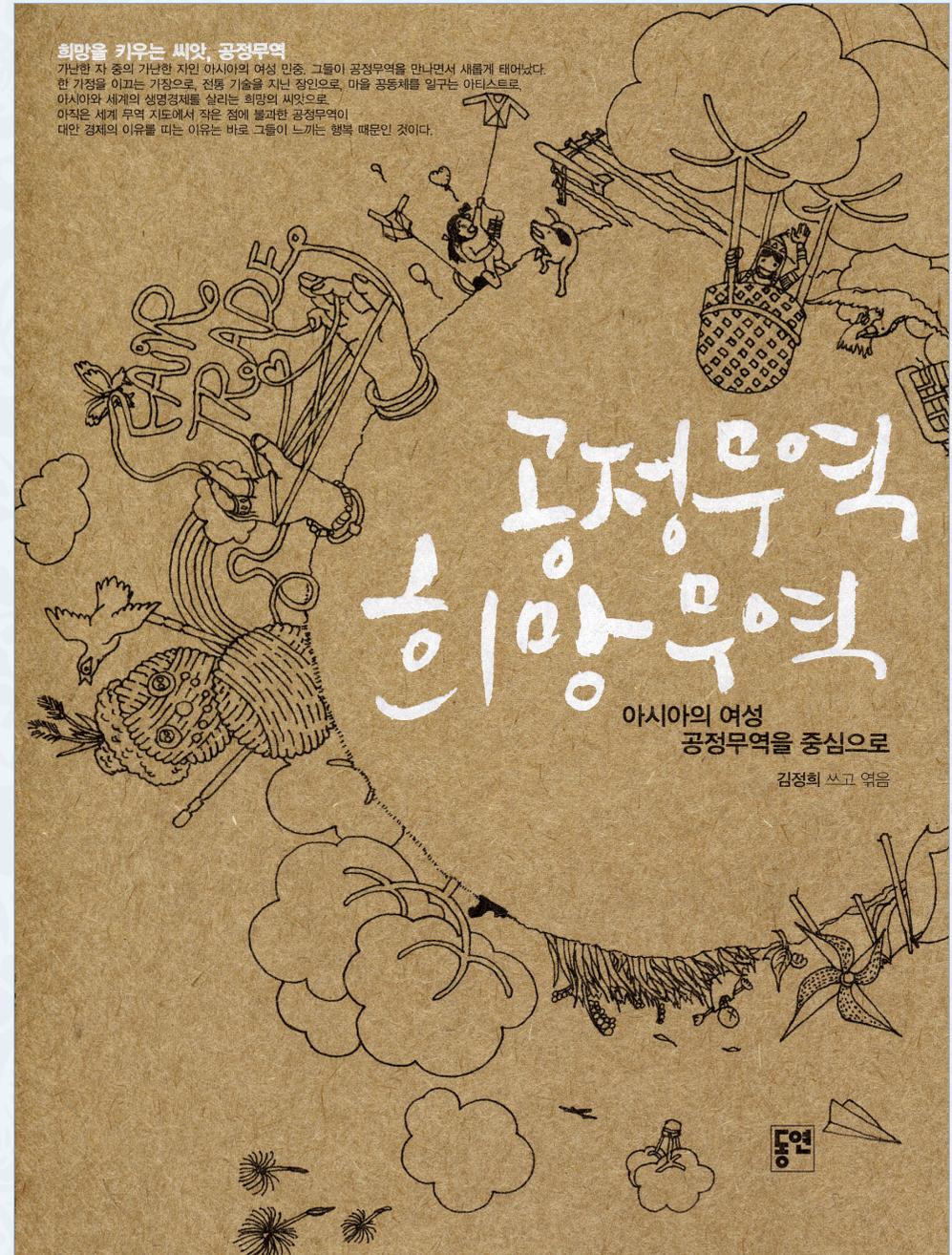
그러나 기존 여성단체들은 이미 과제가 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여성 그룹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여성펀드에서 정치·사회 아젠더 중 젠더의 관점에서 크로스커팅할 이슈를 기획,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나눔과 기부 문화의 새로운 혁신 주도

우리나라의 모금기관은 주로 취약계층을 돕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공익활동 모금기관은 여성재단과 환경재단, 아름다운재단 정도이다. 세 재단이 사회복지 모금기관에 비해 모금액은 적지만 우리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 엠네스티가 인권을 주제로 거리모금을 전개하여 인권의식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세 재단이 공동으로 여성, 환경, 시민참여 등을 내걸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중장기 캠페인을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시민단체 중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성과 규모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 많은 자원과 기획이 필요한 일이므로 세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해보면 좋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젠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보수정권의 등장과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젠더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젠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여성운동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여성운동 뿐 아니라 시민운동 자체가 위기이다. 보수정권하에서 영향력의 정치가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이제 여성들이 직접 정치공간에서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유권자로서 조직화된 집단이 되어야 한다. 이런 힘이 뒷받침되어야 젠더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젠더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보이도록 여성재단이 친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저자 **김정희** 한국여성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이 책은 공정무역 회사 대표님들과 직원분들, 생산자, 관련 단체 활동가, 통역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처럼 저도 한국여성재단과 조그만 나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한국여성재단 10년 축하글

## 돈과 도

글 | 박미라



도와 돈에 대해 원고를 부탁받았다. 청탁을 받아 놓고 보니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 인간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돈에 관해선 얼마나 많은 이론과 학설과 학문 분야가 존재하는가? 도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말하지 않는가 말이다. 도대체 편집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획을 했으며, 나는 또 무슨 만용으로 그 원고를 쓰겠다고 나선 것일까?

그러나 기왕 시작한 일,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여기서 내가 도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시작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 우리 자신의 거울, 돈

삶의 도전도 많고, 그만큼 고민도 많던 30대 어느 시절이었을 것이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생 선배 한 분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던 거 같다. “전 제 힘이 강해지는 게 무서워요. 제가 강해진 힘을 마구 휘둘러서 오만해지거나 누군가에게 상처 입힐까 두려워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나는 그런 힘이 있다면 기꺼이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일

에 쓰겠다!” “…….”

그러면 될 걸! 왜 그토록 나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던 말인가. 그러니 이 시절 내가 돈을 잘 못 벌었던 것은 너무 당연하다. 아래의 설명을 들어보면 말이다.

세계적인 영성운동가, 혹은 의식성장운동의 권위자라고 하는 삭티 거웨인은 ‘돈은 우리 자신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돈이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강한 나, 힘 있는 나를 편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나의 힘을 두려워할수록 돈은 우리와 멀어진다. 돈이 많아지면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이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원인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돈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물신주의, 그것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우리 마음의 반영물이라니 거 참 흥미롭다. 돈을 통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다니 말이다. 아니, 어찌면 돈이야말로 우리의 의식, 혹은 영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 않던가. 가장 극단의 것 안에는 반대 극단의 것이 숨어 있다

는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이 추억이었던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과 도’를 연결시키는 발상을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 역시 물질사회의 요물, 혹은 괴물로 알려진 돈이 굉장히 영적이며, 도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 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부터 좀 지루할 수 있으니 졸린 눈을 비비고 읽어보시길 부탁 드린다. 1)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2)종교적으로 깊이 깨우친 이치. 또는 그런 경지. 3)중국철학에서 ‘올바른 길’ 또는 ‘하늘의 길’을 나타내는 기본 개념.

####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

‘도’라는 말은 원래 동양의 종교와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 각각의 전통에 따라서 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이를테면 유교는 도를 ‘도덕적으로 인간행위의 올바른 길’이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을 중시했고, 도교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근본 개념, 즉 무위자연이라는 말로 도를 설명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참 본성을 말하거나 혹은 그 참 본성을 찾기 위한 여덟 가지 수행법(팔정도)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상에서 도는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길, 이 속세의 삶을 초월한 어떤 본질적인 것임을 가리킨다.

서양의 용어로 바꾸자면 ‘영적인 길’ 혹은 ‘자아초월(trans-personal)의 길’이라고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개념 역시 존재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거나 인간존재의 자기의식(자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초월하는 점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나, 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그 여자, 그 남자라고 인식하는 경계를 넘어서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자꾸 뛰어넘는다. 초월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인식의 경계를 넘어서면 분들의 말씀을 슬쩍 훑쳐보는 건 어떨까.

아주 먼 옛날부터 세계의 성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상과 네 안에서 참된 그 무엇을 발견하라’고 말이다. 그 말씀을 따라 수많은 수행자와 깨달은 자들이 진실을 찾아 긴 여정에 올랐고, 그 여정의 끝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분들이 발견한 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다.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이 가장 희열이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평화로운 어떤 상태, 눈부신 빛으로 존재하는 성스러운 상태, 너와 내가 분리되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상태, 한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흐르고 돌고 나뉘므로써 지극한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참자아.

사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잠시 가만히 앉아 한 곳에 집중해보면 언뜻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 불안과 불만으로 요동치는 생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지극히 충만한 무엇인가가 느껴진다. 어쨌든 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도와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 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더 들어보자.

그들이 이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말의 요체는 이것이다. “눈에 보이는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경쟁하고 상처를 주고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다. 그 차원에서는 누

군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이 바로 그것이다. 인드라라는 인도의 신이 있는데, 그의 궁궐에는 투명한 구슬그물이 드리워져 있다고 한다. 그 구슬그물처럼 이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 잘 벌고, 잘 쓰고 잘 나눌 일이다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그렇겠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좀더 맑은 눈으로, 좀더 멀리 내다보면 그렇다.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행하고 우울한 이웃, 가난한 공동체에서 나만 기쁘고 나만 부유할 수는 없다. 적의에 찬 이웃이 늘어날수록 나의 안전과 행복은 위협받는다. 아이들의 세계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 속에 있다. 분노와 두려움과 외로움에 가득찬 아이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결코 내 아이만 행복하고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시피 ‘돈’은 그렇게 연결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마치 인드라 궁궐의 드리워진, 구슬을 연결하는 그물망처럼 말이다.

또한 돈은 혈액과 같이 물질과 물질 사이를 연결하며 빠르게 흐른다. 병든 곳이 많으면 병의 요

소를 실어 나를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물질을 실어 나를 것이다. 한 곳에 고여서 흐르지 않는 피는 죽고 상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자비의 힘이 실린 돈은 우리를 지극히 기쁘고 평화롭게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참모습, 즉 도에 훨씬 가까운 상태이다. 추하고, 비리에 얼룩져 있으며, 차별하고 멸시하는 힘을 가진 돈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거칠게 만들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참모습과 멀어진 상태일 것이다.

그러니 돈을 잘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잘 벌고, 잘 쓰고 잘 나눌 일이다. 돈 앞에서 자기 부정적인 생각으로 움츠러들지 말 것이며,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해할 것이며, 지나치게 붙들어서 말고 주고받고 나누면서 자꾸 흐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것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로 흘러보내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유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도가 뭐 별건가 싶다. 결국은 돈을 멋지게 잘 쓰는 행위가 바로 도의 실천이며 실현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도라면 저 멀리서 우리를 주눅 들게 하는 그런 것일 리 없다.



#### 박미라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초대 편집장, 작가. 한겨레문화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 〈천만번 관찰아〉, 〈치유하는 글쓰기〉 등 펴냄. 한국여성재단의 〈딸들에게 희망을〉 편집위원.

# 여자 셋이 모이면 돈이 아홉 말

글 | 오한숙희



## 여자도 돈이 있어야 한다

고려시대의 기록에 보면 어떤 귀족가문의 부부 싸움이 실려 있다. 전(前)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재가한 여성이 아들의 교육문제를 놓고 새 남편과 다투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자면 아들에게 죽집계 과외를 시키려는 것을 남편이 반대하여 일반 학원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다. 그 상황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저 아이는 죽은 남편의 일점 혈육인데 저 아이가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한다면 내 죽어 그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는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유로운 자기 발언인가. 이 여성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 할 수 있던 말인가.

고려시대에는 재산을 아들딸 차별없이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균분상속이 대세였다. 평등하게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돌아가며 부모의 제사를 모셨다. 큰아들만이 아니라 큰딸, 막내 아들, 막내딸도 순서가 되면 부모제사를 모신 것이다. 이는 고려사회가 불교를 신봉하여 제사를 절에서 지냈으므로 순번이 돌아온 자녀가 절에 시주를 하고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요컨대 아들과 딸이 의무를 같이 할 수 있었기에 권리도 똑같았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재산 기록을 보면 처래(妻來)라고 하여 여성이 결혼하면서 가져온 논밭과 남녀노비는 별도로 표기되었다. 그 때도 이혼은 없었지만 남편이 죽으면 여성들은 재산을 되찾아 자식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재가할 수 있었다. 앞에 나온 고려여인의 당당함에는 ‘내 돈으로 내 자식 교육시킨다’는 실력이 깔려있다.

그러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함에 따라 부모의 제사도 집에서 지내는 가례로 바뀌게 되었다. 남자위주, 적장자 위주의 유교적 가족제도 아래서 여자들은 친정부모의 제사를 맡을 조건을 상실했고 의무를 행할 수 없는 딸들에게서 재산권이 자연스레 박탈되고 말았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장성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여자의 도리이다.”

이른바 삼종지도는 경제능력의 상실에서 출발한다. 아버지에게 부양받다가 부양해줄 남편을 찾아 결혼하고 노후에는 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다. 요컨대 경제적 의존이 사회적 의존, 심리적 의존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여자들

여성들은 피부양자로 자리매김 되었지만 실재는 논밭농사에 길썰에 살림살이, 자녀양육, 가족을 위한 정서 노동 등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두루 한 엄연한 생산노동자요, 공동부양자였다. 사회제도적으로 여성들에게서 경제권을 박탈했을 뿐, 여성들의 경제활동능력이 사라지거나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제권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여성들은 근검절약으로 돈을 모으는 정신을 키워왔다. ‘홀아비 삼년에 이가서 말이요, 과부 삼년에 돈이 서 말이다’라는 속담이 어찌 나왔겠는가. 부모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상이 여성에게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세월을 오래 살다보니 주어진 환경속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야한다는 생존의지가 잡초근성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여성들의 잡초같은 경제의식이 이룬 쾌거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일본에게 진 빚 1300만환 때문에 나라를 뺏길 위기에 처하며 남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어 나라 빚을 갚자고 나선 것이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이었다. 단주단연회의 발기문에는 ‘여자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 논외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에 여성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겠냐고 국채보상부인회를 조직하고 나섰다. 밥할 때마다 쌀 한줌씩을 모으는 절미회, 반찬가지수를 줄여 돈을 모으는 감찬회,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돈을 모으자는 탈환회 등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티끌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을 실제로 이끄는 태산을 이루

어냈다. 비록 국채보상운동이 제국주의의 노골적인 침략전쟁 앞에서 애초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운명이었지만 여성들은 이 운동과정에서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성들의 사회의식과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것이다.

여성들의 ‘티끌모아 태산’ 정신은 요즘에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평생토록 시장에서 장사한 할머니가 몇 십억을 장학기금으로 회사했다는 소식이 사회미담으로 심심찮게 언론에 소개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니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 아니라 여자 셋이 모이면 돈이 아홉 말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 안방마님 공간열쇠 콤플렉스

한때 여성학계에서 안방마님 공간열쇠 논쟁이 있었다. 곡식을 쌓아놓은 고방열쇠를 여성이 쥐고 있었다는 것으로써 조선시대 여성들이 결코 경제적 약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아닌가. 안방마님은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자기 친정이 어려워도 쉽게 쌀 한 되박 퍼 줄 수 없었고 이웃을 위해 구휼미를 돌릴 수도 없었다. 오로지 남편집안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관리권을 위탁받았을 뿐이었다.

요즘은 여성들도 재산권이 있고 직업을 가지는 세상이 되었다. 부모가 물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재산을 일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뜻에 따라 돈을 쓰는 일에는 고려시대의 선배여성만큼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 한국여성재단 10년의 발자취

1999



2009

해마다 여성재단의 5월 기부릴레이에 여러 사람에게 기부를 권하지만 선뜻 오케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을 내지 못해서이다. 이들은 왜 마음을 내지 못하는가.

이런 공간열쇠 콤플렉스는 여성들에게 유전인자처럼 내려와 여성들은 자기가 번 돈이라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쓸 때는 떼떼하고 자신과 친정을 위해 쓸 때는 웬지 눈치가 보이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니 얼굴도 모르는 다른 여성을 위해 돈을 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보통 여성들은 관심의 범위가 가족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여성이라는 집단의식, 여전히 사회적으로 2차적인 대상으로 차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장학금에 투척한 할머니들에 대해 갖는 아쉬움도 그런 것이다. 당신 스스로 딸이라고 차별받아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장학사업할 마음을 내셨을 것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여성에게는 교육기회가 덜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돈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해 내셨더라면 하는 마음을 떨칠 수 없다.

##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돈

최고액권인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비로소 여성의 얼굴을 가진 돈이 나타난 것이다. 돈과 무관한 존재로 여겨지던 여성이 이제는 돈 자체로 공인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여성과 경제력, 여성과 경제권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여성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안에는 한국사회의 부부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가 다 들어있다. 부부문제 속에는 한국남성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 속에는 한국사회의 교육문제가, 노인문제 속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문제가 깔려있다. 그러니 여성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넓고도 깊은 문제라 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여성을 돕는다는 것은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고 차세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다. 편협하게 여성만 돕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여성재단에 기부하고 여성재단을 돕는 일은 곧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여성재단 10년, 여자 셋이 모이면 돈이 아홉 말이니, 이제는 그 아홉 말을 여성들을 위해 온전히 쓰는 일에 나서야 한다.

### 오한숙희

여성학자, 작가. 친근한 이웃집 아줌마 오한숙희는 여성의 일상을 '수다'로 풀어내 마음의 치유를 돕는 수다 전도사다. 한국여성재단의 기획홍보위원. <너만의 복극성을 따라라>, <딸들에게 희망을>, <부부성공시대> 등 펴냄.



# 한국여성재단 연혁



1999

- 9.1 21세기 평등세상을 열어가 여성기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9.15 (가칭)한국여성기금 발족을 제안하는 범여성계 기자회견
- 12.6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발족

2000

- 13개 지역네트워크 조직, 지역여성단체장 간담회
- 5월 모금캠페인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 한국여성기금 조성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계 & 아스카' 라이브공연
- '저소득모자가정 거울나기' 성금 전달식(최초배분)
- 기업공동캠페인(국민카드, 애경산업, 참존화장품, 태평양, 조흥은행)

2001

-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참가 정신대할머니 여비지원'
- 아름다운재단 공동주최, '나눔 2001 콘서트'
- 북한어린이돕기 기금마련 한은회 한복패션쇼
- 현대백화점 '모자가정돕기 자선대바자회'
- 모자가정돕기 SBS모금방송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Korea Foundation for Women)으로 재단 명칭 변경
- 국제기부문화워크숍 '미국의 기부문화와 펀드레이징의 실제' 개최
- 여성기금 마련 'Women's Gala Concert 2001'
- 기부문화확산 공로자초청 청와대오찬
- 새생명 새희망 의료계공동캠페인(길의료재단, 박금자산부인과, 광주에덴병원)

2002

- 저소득모자가정돕기 SBS특별모금방송 '엄마 힘내세요!'
- 한국여성재단 번역출판물 1호, <성공적인 모금전략> 출간
- 교보생명파 여성재단이 함께하는 빈소년합창단 초청공연
- 여성단체의 성공적인 모금전략과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2003

- 한국여성재단 기부자초청 청와대오찬
-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단체 실무자연수프로그램 공모
- 5월 집중모금캠페인 100인 기부 릴레이
-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의 공정성과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Giving Expo 2003' 공동개최
- 교보생명 공동주최, 빈소년합창단 경북궁 초청공연

2004

- 17대 총선대비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구성(여성계공동)·운영
- 5월 집중모금캠페인, 새날기금 마련 '100인 기부 릴레이'
- 교보생명 공동주최, '2004 Sound of Music @ Seoul'
- (사)미래포럼 발족

2005

- 여성노숙인을 위한 드림인센터(우리들의 좋은 집) 개소식
- 2005 Korea Big Women Fashion Show
- SK Telecom과 함께하는 행복PC 지원사업 전달식
- CJ홈쇼핑과 함께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가족 의료비 지원사업
- 모금방송 약정
-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지원, 저소득층 여성 전문헤어디자이너 양성프로젝트
-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협약식
- '행복한 가족기금' 조성을 위한 100인 기부 릴레이 이맘이초청 청와대 오찬

2006

- CJ홈쇼핑과 함께하는 '엄마에게 희망을!' 2006년 1차 모금방송
- 우림건설 후원, 여성공익활동가와 소외여성 장학금전달식
- 한국여성재단 사육 매입, 서교동이전
- 생그린 '저소득층 여성건강지원기금' 설치
- CJ홈쇼핑과 함께하는 '엄마에게 희망을!' 특별모금방송



2007

- 교보생명 후원, 제1회 여성공익단체활동가를 위한 모금전략워크숍
- CJ홈쇼핑과 함께하는 '엄마에게 희망을' 모금방송
- 청와대 영부인 초청, <명예홍보대사 격려 오찬> 참석
- SBS(김미희의 U)와 함께 한 2007여성주간특집 모금생방송 '엄마, 힘내세요!'
- 삼성생명 후원, 제1회 결혼이주여성가족들의 친정방문 날(NAL)자 프로젝트 지역청소년을 위한 미래희망 일터체험(아우백스테이크하우스 성산점)
- 유한킴벌리 후원, 미래여성장학사업 시작
- SBS, 사회헌원 성금전달식

2008

-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SOS사업단' 발대식
- 풀무원 후원, 여성활동가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 G마켓 후원,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프로젝트 <위드멘토> 약정식
- 다문화안전망구축프로젝트 '다정다감(多情多感) 운동회'
- 싸이월드&바디샵과 함께 하는 가정폭력추방 서명캠페인
- 전교조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희망나누기' 기금전달식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 아이디어마을(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마을) 개소식
-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다문화다함께' 파트너단체 선정(29개 단체)
- <박영숙을 만나다> 출판기념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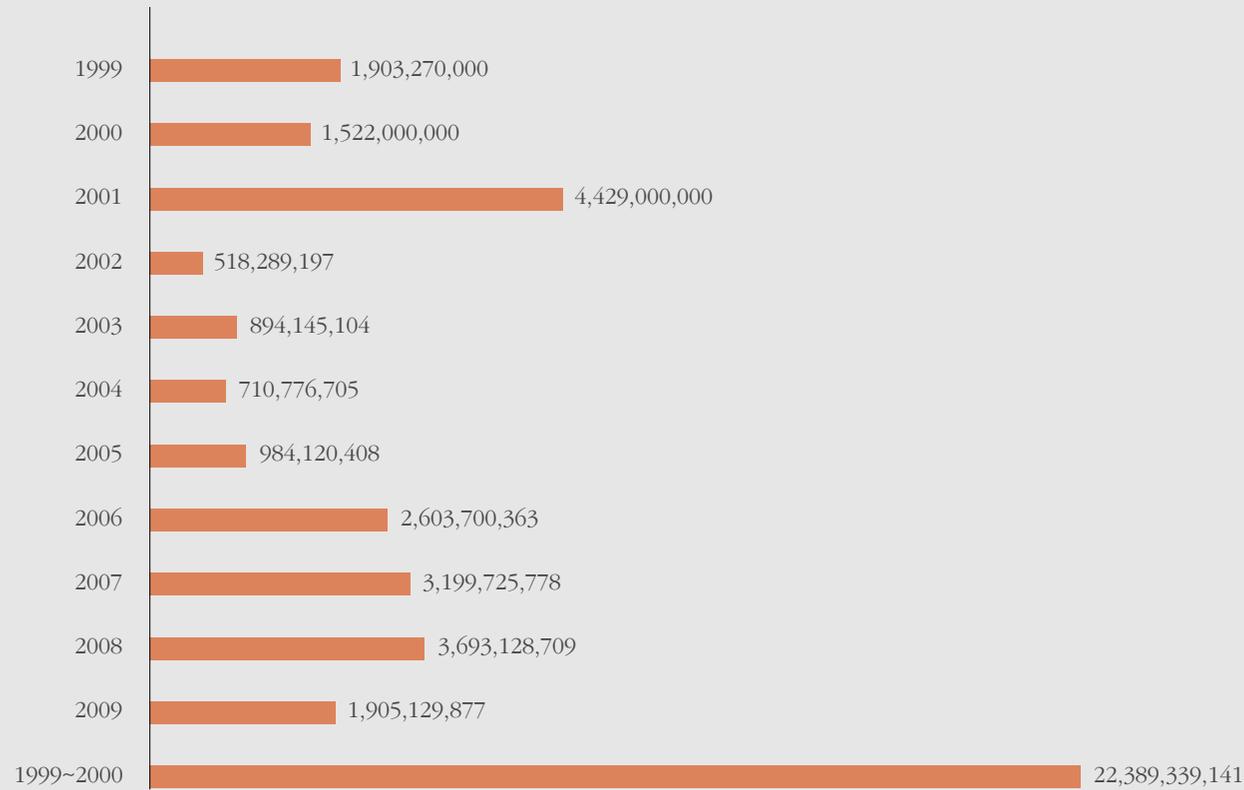
- 조형 신임이사장 임기 시작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 '2009결혼이주여성 의료지원사업' 시작
-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다문화가족안전망구축프로젝트 시작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건강길라잡이> 발간
- 삼성테크윈 여사원회 <한울타리> 기부금 전달식
- 아모레퍼시픽과 사이좋은 세상이 함께 한 '여성암환자돕기 캠페인'
-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하는 다문화 UCC공모전 시작
- 국제이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 도서나눔(아이디마을전달)
- 2009 100인 기부 릴레이 기부자 감사행사
- 2009 여성생활시설개보수지원을 위한 태평양복지재단 기금 전달식
- 대상(주)청정원 후원, '청정원과 함께하는 나눔의 숲 파이팅 맘!' 개최
- 삼일미래재단 주최 2009 삼일투명경영대상 여성부문 대상수상
- G마켓 후원,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지원프로젝트 종강파티
- 한국여성재단 지역여성단체와의 간담회(서울, 대구, 광주)
- 창립10주년기념 나눔음악회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 10년 주요모금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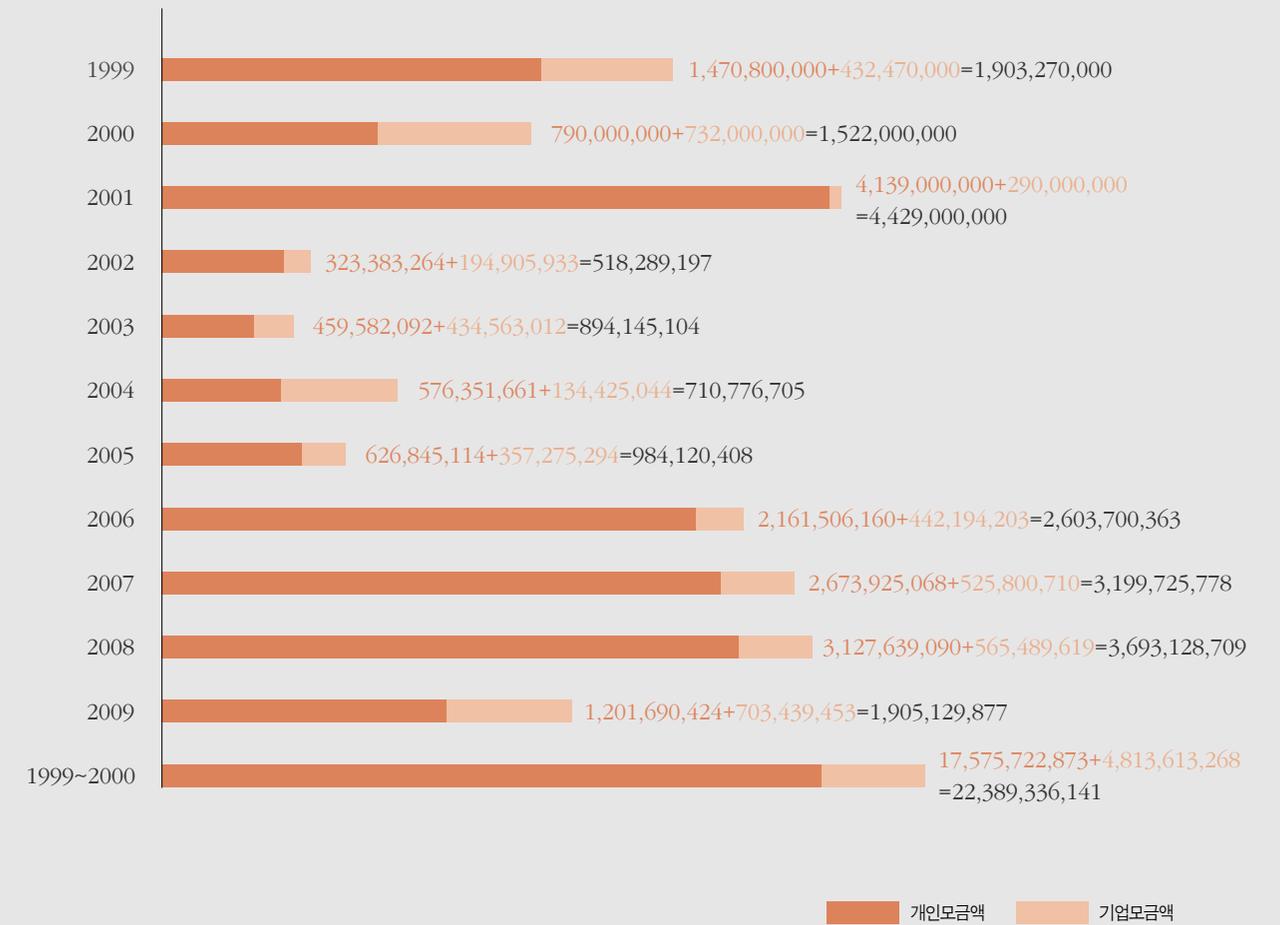
### 나눔으로 '딸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은 2009년 12월 6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해 주신 기부자, 파트너단체, 파트너 기업,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0년간의 모금, 배분사업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금활동, 투명한 배분으로 "딸들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연도별 모금 현황 (단위:천단위)



연도별 모금 현황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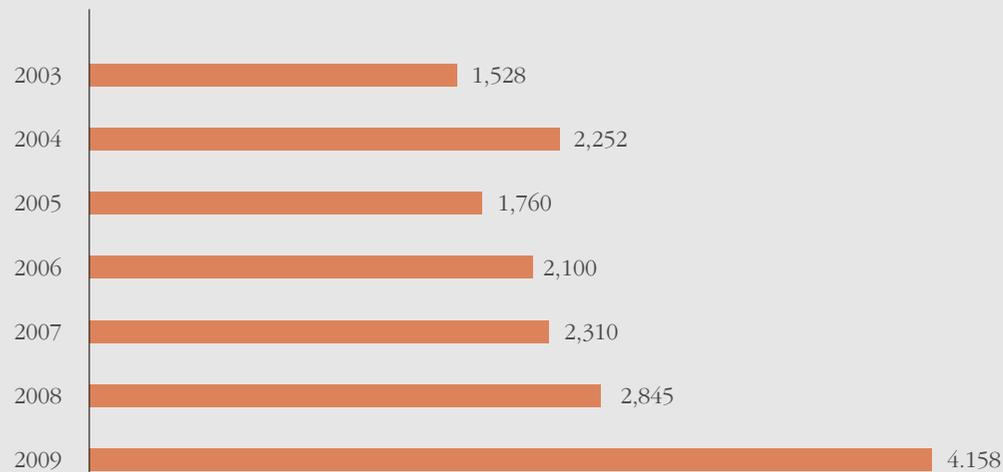


연도별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 현황(단위:천단위)

100인 기부 릴레이는 나눔문화 확산과 여성이슈의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3년도부터 매년 5월 한 달 간 진행해 온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대중모금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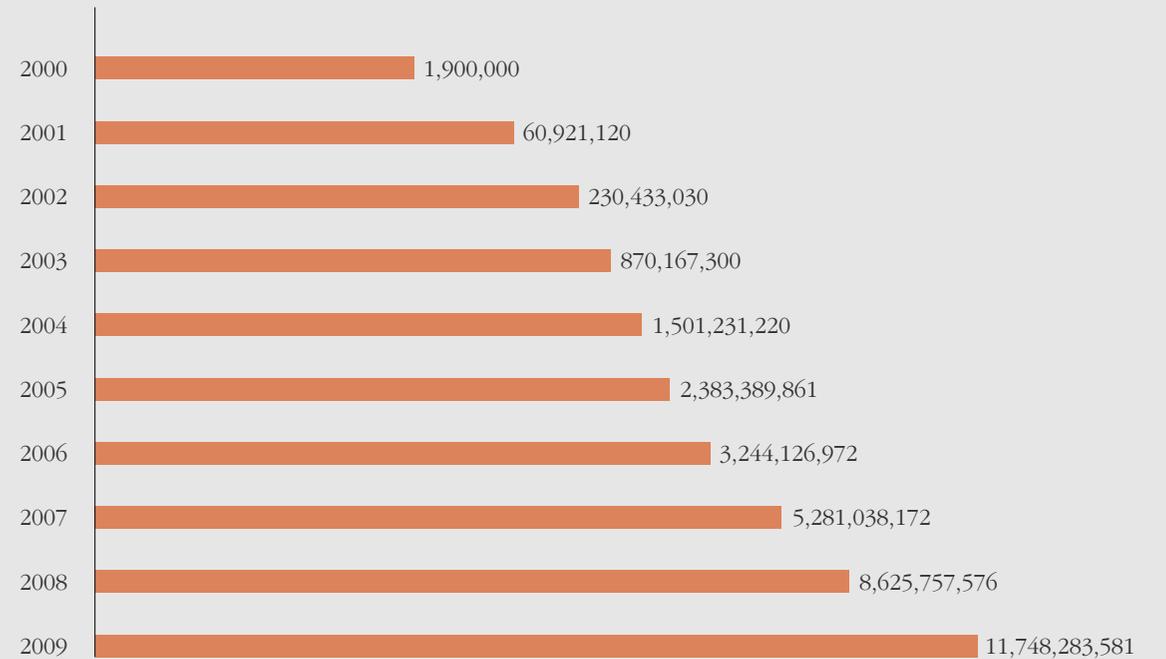
연도별 100인 기부 릴레이 참가자 현황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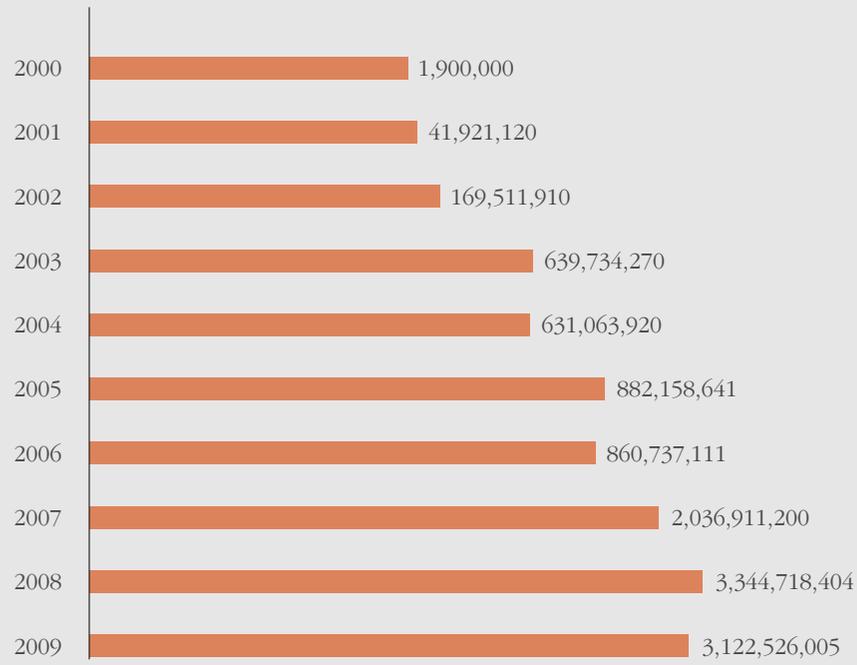
## 한국여성재단 10년 주요배분사업 현황

10년간 누적 배분총액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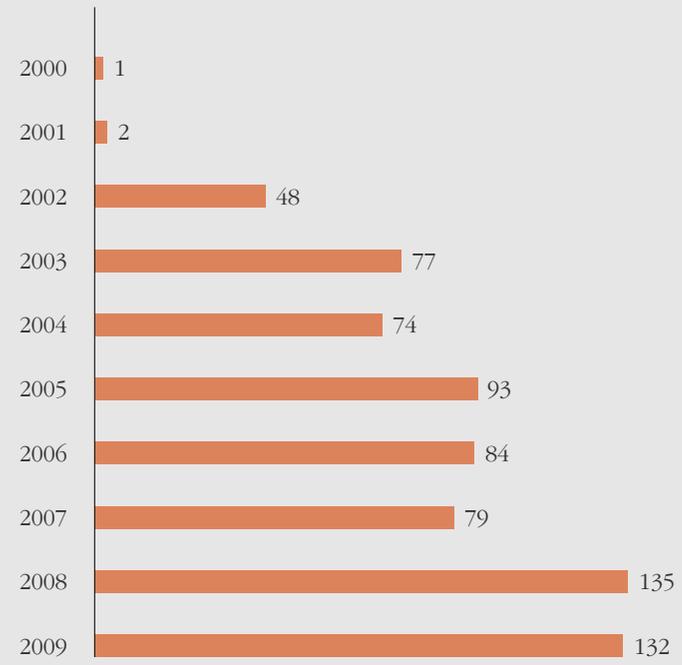
지속적인 배분총액의 2008년, 2009년 급격한 증가  
(다문화 다함께 15억, 캐쉬SOS 20억 등 대규모 배분 사업 등장)  
한국여성재단은 10년간 총 약 117억의 기부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연도별 배분 총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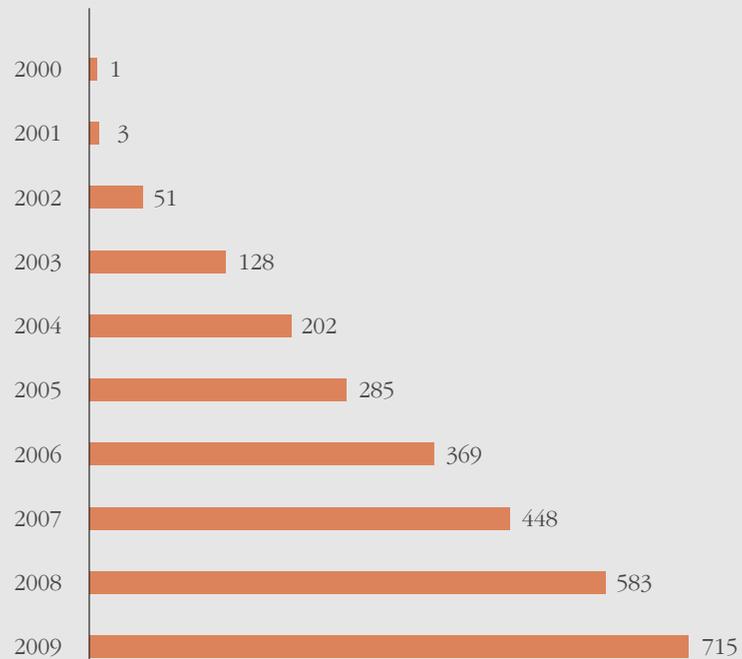


연도별 배분사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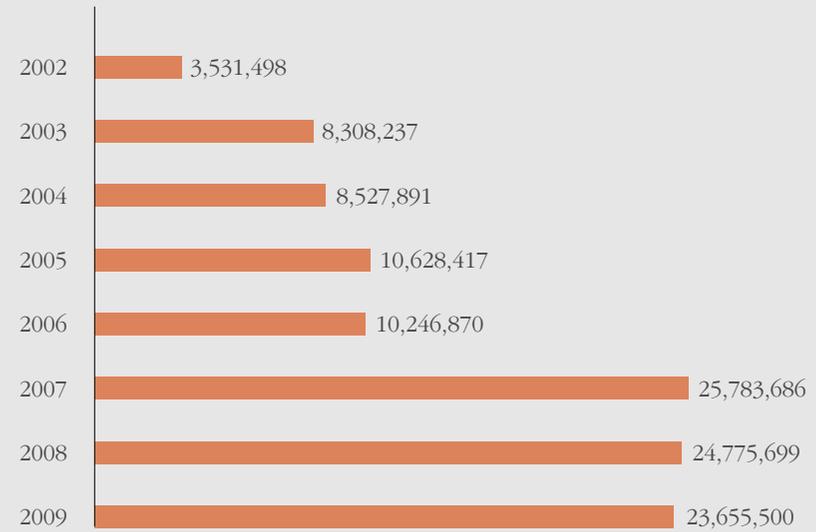


연도별 누적 배분 사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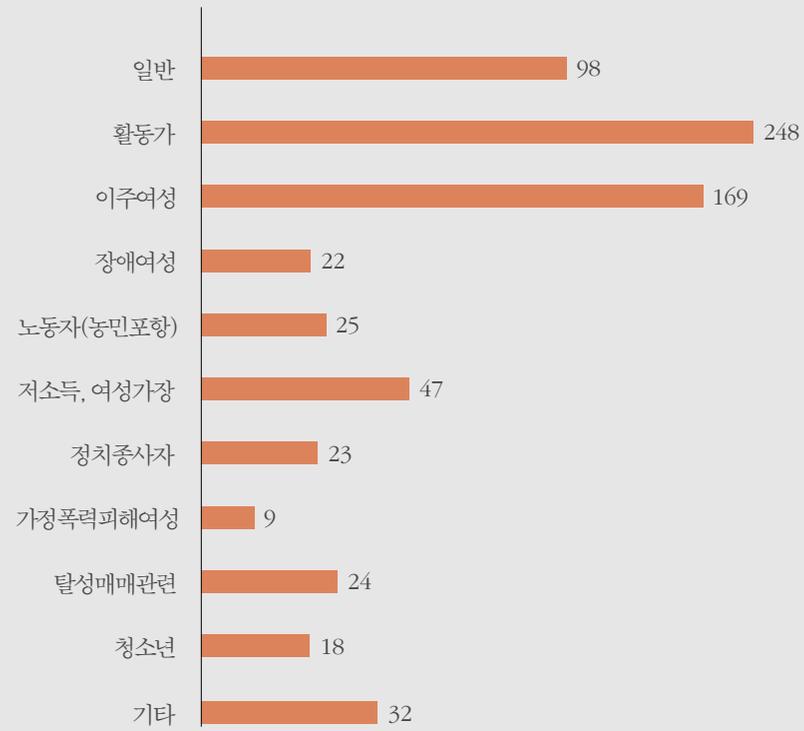
10년간 한국여성재단은 총 715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진행된 연속사업이 62개로 실 사업수는 6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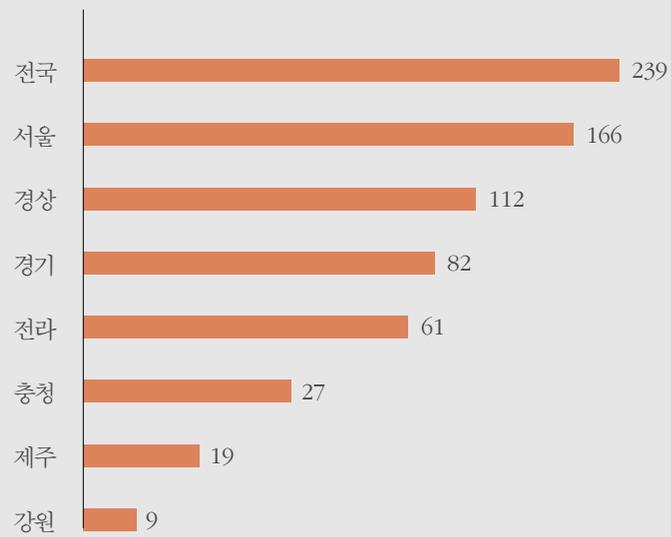
연도별 사업당 평균 배분액 (단위: 원)



10년간 배분 사업의 대상별 분포 (단위:개)



10년간 배분 사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개)



## 한국여성재단 10년 지원사업 현황

(2009년 12월 현재)

### 2000

지정기탁 SBS ARS 모금특별생방송 저소득모자가정 겨울나기 지원사업

### 2001

한국여성기금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참가하는 정신대 할머니 여비지원사업(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정기탁 미래동반자재단 여성실업자 재취업교육 지원사업

### 2002

#### 한국여성기금

시소개입-지역내 내부 성평등의식조사(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

장애여성의 성인식 실태조사(장애여성공감)

농촌지역중심 여성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사업(한국여성단체협의회)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여성주의와 인간보호(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2003 지구정상회담 NGO포럼 및 아시아 여성환경회의 참가지원(여성환경연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여성, 몸, 성 워크숍(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비혼여성자리찾기(대구여성회)

여성문제 대중정론지 <여성과 사회> 제14호 발간(한국여성연구소)

3.8세계여성의날기념 비정규직 여성권리의식향상을 위한 문화공연(서울여성노동자회)

성차별적 문화개혁과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여성문화제(한국여성학자협의회)

대상별 여성주의 성교육사업(서울여성의전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성장애인 문화학교(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평화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및 여중생 평화캠프(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교로 찾아가는 남녀평등 교육극(어린이문화예술학교)

가정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인천내일을여는집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녀평등확산사업-21세기 남녀평등대학(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빈곤지역 공부방 여성실무자 지역사회조직활동촉진을 위한 여성지도력 개발프로그램(부스리기사랑나눔회)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한국교회여성연합회)

지역사회 여성NGO활동가 양성을 위한 여성리더십아카데미(한국여성지도자연합)

국회여성보좌진 양성교육(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주의 성교육 워크숍(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여성의 새로운 사회적역할 모델개발프로그램(복색살을위한여성들의모임)

여성지역사회교육 주부의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금생사랑방문화클럽)

21세기 일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광주YMCA)

여성지도자리더십 개발을 위한 갈등중재 훈련프로그램(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주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기관 및 쉼터 종사자를 위한 명상치료 워크숍(한빛여성의쉼터)

여성운동발전을 위한 지도자 수련회-업그레이드 여성운동 만들기(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노동운동가 양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지도력향상교육(전국여성노동조합)

빈곤여성가장의 자아개념 강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빈곤여성가장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적접근 프로그램(삼전종합사회복지관)

빈곤여성가장 종합지원사업(광주여성노동자회)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생활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남산종합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자기개발을 위한 창작교실(군포여성민우회)

저소득층 중장년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중풍치매전문간병인회)

소외된 여성계층을 위한 나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수궁원)

저소득 모자기정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월성종합사회복지관)

홀로된 여성을 위한 슬픔치유 프로그램(각당복지재단)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예방프로그램(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활정보가이드북(부산여성장애인연대)

이주여성노동자의 문화적 갈등해소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기독교민회)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사회기능강화 프로그램(잠실종합사회복지관)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재활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새움터)

## 지정기탁

미래동반자재단 여성실업자 재취업교육 지원사업

SBS ARS모금특별생방송 저소득모자기정 지원사업

영국부인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사업

## 2003

### 한국여성기금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조사와 대안모색을 위한 공개세미나(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운동 20년, 〈인권백서〉발간사업(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프로그램(경기여성연대)

실업계 여고생 진로탐색 워크숍, 2003 나를 위한 세상 열기(대전여민회)

평등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삶의 정치교육(안양여성회)

가정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인천내일을어는집)

자신있는 삶을 위한 여성강좌와 문화체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노동자상담소)

여성정치리더십 개발을 위한 모의 유세대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청소년 정치캠프,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꿈꾸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인형극 공연(강릉성폭력상담소)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너와나, 우리 몸 지키기(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빠와 딸을 위한 동화(마산YWCA)

여성 아르바이트 상담전화 운영 매뉴얼 제작(서울여성노동자조합)

여성 사이버 행동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환경 개발(언니네)

일상생활속의 성상품화 전시회, 밀실에서광장으로(여성문화인권센터)

딸들을 위한 캠프(전주여성의전화)

성교육을 통한 자아성장 : 저소득층 및 시설 청소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적 의사결정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캠프(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 아카데미(전리북도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정치세력화, 광주에서 열어간다(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주민자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리더십 교육(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아파트(제주여민회)

노동조합 여성지도력 향상교육(전국여성노동조합)

2003 전국여성운동가 한마당·몸·마음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여성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여성단체 정책실무자 워크숍(한국여성단체협의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걷기 대회(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일본군성노예와 강제노동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 NGO포럼(정대협)

한부모 여성기정 및 취업전 자녀의 자활을 위한 자기기능 능력증진 훈련 프로그램(각화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가장 삶의 만족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구미아동상담센터)

저소득·빈민여성을 위한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행복만들기(날피터)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저소득 모자세대의 정서지지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 취업알선을 위한 임산부·산모도우미 교육프로그램(마산사랑의전화)

빈곤여성 한부모의 심리적·정서적안정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울산여성회)

빈곤여성가장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욕구충족 프로그램, 나도 할 수 있다!(제주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사회적 잠재역량개발을 위한 임피어먼트(잠실종합사회복지관)

성매매피해여성 자립(창업)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언니에게 희망을!(새움터)

자립을 위한 소녀들의 직업체험 기행(은성직업기술원)

기지촌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두레방)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성시각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사업(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비혼여성의 지위향상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연제가정폭력상담소)

여성단체 실무자 연수프로그램 〈짧은 여행 긴 호흡〉 지원사업(전국여성활동가 16개팀 241명)

### 한국여성기금(수시)

호주제폐지시민연대\_호주제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한미당사업

시민단체연대회의\_풀뿌리지역 시민운동 사례공모사업

2004년 17대 총선연대\_여성정치참여확대사업

참여여성노동복지터\_여성단체 설립기반 지원사업

## 지정기탁

교보생명\_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사업(이주여성노동자)

교보생명 사회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빔프로젝터 지원사업

우림건설\_우림루미아트 여성장학금 지원사업(청소년)

한국 P&G 실직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주)이폴리머\_빈곤여성 생활비 지원사업

김성주사장\_여성장애인 경제적 자활돕기위한 컴퓨터 지원사업(여성장애인)

최종근·이연자씨 부부\_청각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매월100만원씩 10개월간)

CJ·LG홍소핑\_한부모가족 한가위선물나눔 지원사업

## 2004

### 한국여성기금

평등가족의 새로운 명절문화 만들기(김해여성회)

<p><b>한국여성기금(수시)</b></p> <p>시민리더십컨퍼런스 지원사업(시민의신문)</p> <p>제2회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공모사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p> <p>제9회 아시아 이주노동자회의 지원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p> <p>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토론회(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p>
---

<p><b>지정기탁</b></p> <p>교보생명 &lt;짧은 여행, 긴 호흡&gt;(전국여성활동가 17개팀 222명)</p> <p>(주)이폴리머_빈곤여성생활비 지원사업</p> <p>성주디앤디_한국여성재단 지원</p> <p>성주디앤디_차세대 리더 개발 장학사업</p> <p>우림건설_우림 루미아트 장학금</p> <p>우림건설_소년소녀 해외여행</p> <p>SK Telecom_남북여성교류 연구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 홍보비 지원</p> <p>CJ, 유한킴벌리, 애경포인트_빈곤여성가장 한가위 선물나눔</p> <p>장인마루_성매매피해여성쉼터 은성원 마루 시공</p>
---

## 2005

<p><b>한국여성기금</b></p> <p>미디어 속의 여성 바로보기(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p> <p>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강화(살기좋은우리(금천)구만들기여성회)</p> <p>강원도 내(춘천/원주/강릉/속초) 대학생 성매매 예방캠페인 "성매매근절! 이젠 자기선언이다"(속초성폭력상담소)</p> <p>제2회 언니네 페미니즘 캠프(언니네)</p> <p>웅인 시민단체회원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워크숍(웅인여성상담소)</p> <p>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아카데미-3기(전북여성단체협의회)</p> <p>여성의 눈으로 역사 바로보기 "여성문화발굴단"(제주어민회)</p> <p>어린이성교육 인형극단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 "호호아줌마랑 놀자!"(충남성폭력상담소)</p>
---

<p>페미니즘과 대안적 가치:최근의 한국사회변화에 관한 전더분석과 전망모색(한국여성연구소)</p> <p>2006 지방자치선거 여성후보양성 프로그램(경남여성회)</p> <p>새 정치의 희망, 여성이 일군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광주YWCA)</p> <p>중,고령 여성을 위한 '원예관리사 양성과정' 개발 및 일자리 연계사업(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p> <p>청소년 정치캠프 "정치야 놀자!"(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p> <p>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과 기반조성사업(울산여성회)</p> <p>2005여성노동자 현실과 희망 사진전 및 게릴라 버스캠페인(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p> <p>북한이주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span> </span>: 이해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또하나의문화)</p> <p>레즈비언 전시 "작전"과 레즈비언 문화생산자 네트워크 구축사업(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p> <p>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lt;성폭력-법적 쟁점 분석 워크숍&gt; 및 법조인, 예비법조인 대상교제 단행본 &lt;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법담론&gt;발간(한국성폭력상담소)</p>
---

<p>해방60주년,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명예와 인권을!(정대협)</p> <p>전여대협 제 2회 역사기행(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p> <p>"여성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새로운 여성운동의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및 심포지움(한국여성단체연합)</p> <p>&lt;한국여성평화운동사&gt;발간(평화를만드는여성회)</p> <p>한부모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지수 높이기'(부산여성회한부모가족지원센터)</p> <p>자조모임을 통한 한부모 여성가장 힘기르기 프로그램(이화부설성산종합사회복지관)</p> <p>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self-up &amp; growth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다시함께센터)</p>
---

<p>성평등 사회정착을 위한 TV드라마 바로보기 및 설문조사(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p> <p>언니네 사이트/여성네티즌과 여성단체,소규모 여성모임(언니네)</p> <p>전북여성영화아카데미-2기(전북여성단체협의회)</p> <p>"끌려간 여성들, 빼앗긴 여성들" 중국거주 위안부피해자 여성사진, 영상전시회 및 포토에세이집 발간(평화인권센터일본군위안부역사관)</p> <p>여성노동영화제 및 전국 릴레이 상영회(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p> <p>대학내 반성폭력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및 학내캠페인(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p> <p>여성문제 대중정론지 &lt;여성과 사회&gt; 2004년분 발간(한국여성연구소)</p> <p>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유권자의 의식조사 및 실천전략개발(울산여성회)</p> <p>아줌마 내공 프로그램(줌마네)</p> <p>지방분권시대 여성의 지역자치학교 "지역자치 여성이 만든다"(경남여성회)</p> <p>풀뿌리 여성지도자 활동 사례개발 및 역할강화훈련프로그램(녹색살을위한여성들의모임)</p> <p>나눔과 이음을 위한 지역 여성학 강사 워크숍 및 네트워킹(부산여성사회교육원)</p>
---

<p>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아파트-두 번째(제주어민회)</p> <p>지역생활정치를 일구는 "여성자치학교"(춘천여성민우회)</p> <p>더 좋은 상담-성폭력 사건 지원자를 위한 매뉴얼북 제작 배포(한국성폭력상담소)</p> <p>2004 여성의 자기표현 워크숍(여성문화예술기획)</p> <p>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세력화를 위한 교육활동(전국여성노동조합)</p> <p>자신있는 삶을 위한 여성강좌의 문화체험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p> <p>2004 우리농업지키기 여성농민한마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p>
---

<p>여성평화운동 업그레이드 "여성평화운동지도력향상 및 인프라 형성"(평화를만드는여성회)</p> <p>2004 보육의 세기를 열어가길 전국보육교사 한마당(한국보육교사회)</p> <p>21세기 여성운동의 전망 만들기(한국여성단체연합)</p> <p>전국활동가수련화-우리는 희망(한국여성의전화연합)</p> <p>남녀가 함께 웃는 세상을 향한 태백여성한마당(태백가정폭력상담소)</p> <p>아시아여성환경회의-젠더와 물(여성환경연대)</p>
---

<p>빈곤여성한부모의 자선감 회복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서울YWCA가락종합사회복지관)</p> <p>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장기적 사례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조직화 프로그램(잠실종합사회복지관)</p> <p>창문 밖 세상 만들기(제주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p> <p>성매매피해여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연극치유 프로그램(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p> <p>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치유 및 자활프로그램 "다시 시작하기"(여성문화인권센터)</p> <p>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방문 성교육(천주교성폭력상담소)</p> <p>여성장애인의 복지전문모니터 인적자원개발(대구여성장애인연대)</p> <p>여성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가꾸는 건강한 노동, 아름다운 생활(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료공제회)</p> <p>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여성주의 성교육 프로그램(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p> <p>광주전남지역의 한국남성과 혼인한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광주지부)</p> <p>전북지역 여성농민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전북여성농민회연합)</p> <p>우울한 오후에 날개달기(우울문제가 있는 알코올 의존자 부인대상 생활구조개선 프로그램)(중앙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p>
--

<p><b>맑은정치여성기금</b></p> <p>총선여성연대 유권자 캠페인(총선여성연대)</p> <p>17대 여성국회의원 축하연(맑은넷,총선여성연대)</p> <p>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실무자 인건비 지원(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p> <p>'2004 국정모니터-평등국회지킴이 사업 및 &lt;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어디까지 왔나&gt; 단행본 발간(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p>
--

살림(survivors)사는 여자들, 글쓰다(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가정폭력피해자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도약" (여성문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난장 '일평단심:한 평의 공간, 단단한 마음'(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색수업리티 그리고 정체성 찾기(장애여성문화공동체)
이주여성노동자 모아보호(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이주여성이 함께 만든 평화의 섬 제주 "우리도 제주사람 이우다"(한빛여성의쉼터)
전북지역 여성농민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연합)
정신지체 자녀를 둔 역량강화 프로그램(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문의 불을 밝히는 봉제의류여성노동자들의 삶에도 희망의 불씨를!(참여성노동복지터)

<b>새날기금</b>
ESCAP 아시아 태평양 여성환경회의(여성환경연대/대전여성환경포럼)
세계여성운동의 전망모색과 연대를 위한 국제세미나(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 CAW)
갈등, 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여성평화리더십 만들기(평화를만드는여성회)
동남·동아시아지역 여성농민지도자연수(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주여성 인권지원을 위한 활동가 국제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한국여성의전화연합)

<b>한국여성기금(수시)</b>
3·8 세계여성의날기념 시민사회단체활동가를 위한 젠더감수성훈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21회한국여성대회준비위원회)
호주제폐지 축하연(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2005 안티성폭력페스티벌 porNO porNA(IF,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 등 15개 단체)
제3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풀뿌리지역시민운동 사례공모(여성발전기금의합리적운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의 존치와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아시아이주여성포럼준비위원회)
아시아 이주여성 포럼(워크숍)(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등)
2006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자치·맑은정치여성행동' 발족 및 여성의 지방의회참여 여론확대사업(생활자치?맑은정치여성행동)

<b>지정기탁</b>
교보생명_〈짧은 여행, 긴 호흡〉(전국여성활동가 18개팀 237명)
교보생명_사회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빔프로젝터 대여사업(총7대)
교보생명_서울여성의전화_부설 중부여성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교보생명_도움닫기 프로젝트
한화, 한화건설_여성노숙인드롭인센터 마련 지원사업
삼성코닝_정밀유리 새생명·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우림건설_우림 루미아트 여성장학금 지원사업
태평양_`2005 남북여성 통일행사' 물품지원
유한킴벌리_한가위 선물나눔
풀무원_한가위 선물나눔
애경_3·8 세계여성의날기념 빈곤여성가장 물품지원
SK Telecom_SKTelecom과 함께하는 행복PC 지원
이기열_모금위원(덕수케미칼)_시청각장애를 가진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물품지원
샘터_봉사회_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금 지원
PBMS_여성노숙인 응급구호 물품지원
PBMS의 룬가우드 사장 부자_여성노숙인쉼터 우리들의좋은집 여성정보화사업 물품지원
현대인재개발원여성리더십센터_여성NGO리더교육 후원사업

농협사료_여성농민정책토론회 지원사업
CJ홈쇼핑 빈곤여성가장 및 가족 대상 여성건강기금지원사업
박승철헤어스튜디오_박승철헤어스튜디오 저소득층 여성 전문 헤어디자이너 양성 프로젝트

## 2006

<b>한국여성기금</b>
웰컴 투, 희망정치! 여성유권자가 지역을 바꾼다(경남여성회)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여성후보 발굴과 유권자 교육(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제1기 여성주의 미디어 액티비스트 양성교육워크숍-미디어, 빼앗긴 소통의 창구(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지역의 희망, 여성의 정치참여-`정치횡단 프로젝트"(대전여민회)
주부의 힘으로 마을공동체학교 만들기-안성지역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Educator양성교육(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건강관리사' 양성프로그램(여성환경연대)
북한 이주청소년녀와 함께하는 여성주의학교(또하나의문화)
딸들을 위한 평등성문화, 성교육 교실(밀양성폭력상담소)
3회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언니네)
전여대협 3회 `여성역사기행'(11기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단 보수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충남성폭력상담소)
아저! 양성평등 가족문화는 엄마 손으로(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여성인권영화제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서울여성의전화)
근로빈곤여성 문화교실 및 리더십 훈련(인천여성노동자회)
제6기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기지춘 운동 20년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문집 출판(두레방)
여성의 눈으로 문화, 역사 바라보기 `여성문화발굴단'-두번째(제주여민회)
한부모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지수 높이기"(부산여성회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봉제의류 여성노동자들의 "엄마교실"(참여성노동복지터)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 및 자활프로그램(광주성매매상담소언니네)
자조집단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권익신장 프로그램(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임실지역 여성농민 농부증 예방 및 치료사업(임실군여성농민회)
나도 가끔은 주인공이 되고 싶다-연극, Movement 미술치유접근(깁예술치유시민네트워크)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새터민의 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b>행복한가족기금(100인기부릴레이모금)</b>
모라동의 행복한 동지 틀기(부산여성회아동센터)
조순 가정의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셋별과 은빛가족 이야기"(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의 치유를 위한 Lucky(樂喜) 프로그램(한국여성민우회군포지부)
국제결혼부부의 초기 갈등해소를 위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여성한부모모아리의 지역사회 참여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족만들기(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가족만들기- 노인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한국여성단체연합)

<b>한국여성기금(수시)</b>
한국사회포럼 2006(한국사회포럼2006조직위원회)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운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사업(한국여성민우회)
풀뿌리지역시민운동사례 공모사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31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광역단체장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 및 유권자 캠페인(생활자치맑은정치여성행동)

‘운동사회내 성폭력을 다시 묻다’ 토론회(한국성폭력상담소)

## 지정기탁

교보생명 사회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빅프로젝터 대어사업

교보생명 도움달기 프로젝트

교보생명 짧은 여행, 긴 호흡(여성활동가 19개팀 259명)

교보생명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우림건설 여성장학금 지원사업

CJ홈쇼핑(엄마에게희망을모금방송)\_빈곤여성가장 및 가족의 의료비 지원사업

삼성코닝 정밀유리\_새생명·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G마켓 여성폭력예방 사랑의 호루라기나눔프로젝트

수법사 지수스님\_여성노숙인 지원사업

(주)코리아나화장품\_2006남북여성통일행사물품후원

CJ나눔재단\_한가위 선물나눔

이랜드복지재단\_한가위 선물나눔 지원사업

부산 익명의 후원자\_한가위 선물나눔

유한킴벌리\_한가위 물품나눔

유한킴벌리\_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생리대 지원

유한킴벌리\_중고 노트북 지원

풀무원\_성매매 피해여성과 장애여성 건강 지원사업

마린랜드\_저소득 여성가장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2007

### 100인 기부릴레이+일반기부금

동네방네 행복정치 프로젝트(경남여성회부설여성정치발전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워크숍(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19세 새내기여성유권자 투표참여선언 ‘친구들이! 투표하자!’(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울산지부)

비정규직 여성 힘내라! 전국 캠페인 및 이동 상담(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기강화교실(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개인의 차별 기록을 중심으로(제주여민회)

어린이성폭력예방인형극 DVD 제작 및 배포사업(충남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자회 창립20주년기념 심포지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제2회 여성노동영화제(서울여성노동자회)

성평등문화로 농촌지역 행복지수 높이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태원지역 성매매에 대한 현장활동단체의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사업(막달레나의집현장상담센터)

제2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 (서울여성의전화)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회 여성주의 액션 박람회(언니네)

“한국여성민우회 20년사, 여성운동 새로쓰기” 출판 사업(한국여성민우회)

### SK텔레콤 이웃사랑성금

한부모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지수 높이기” (부산여성회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빈곤여성 한부모의 힘찬 세상 만들기(이대성산중합사회복지관)

탈성매매 여성의 자기성장(self-empowerment) 프로그램(광주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언니네)

경제, 내 손안에 있습니다!-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운영능력활용 프로그램(제주상담센터부설가족사랑센터)

도서지역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상담 프로그램(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국제결혼 베트남의 딸들이 한국인가족으로서의 정착을 위한 “한국의 모든 것 알리기”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외국인여성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무안여성상담센터)

아산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자아실현 프로그램(아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함께 이루는 가정, 함께 여는 미래(씨울 여성회)

중증장애여성 자립생활 동료상담 리더양성교육(성동장애인지립생활센터)

성인여성장애인과 여성수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생활속 지킴이(여성장애인전문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창산동 이좁마 미상으로 잘먹고 잘살기(참여성노동복지터)

### 기획공모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_

“피해자 중심의 성매매 왜 근절되어야 되는가?” 국제회의(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글로벌 여성인권 영상제(여성성공센터W-ing)

’2008,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형성(평화를만드는여성회)

예비여성정치지도자의 글로벌 리더십연수(광주YWCA,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단체협의회)

공정무역 아시아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자지원을 위한 SGP(Small Grant Program)개발(여성환경연대)

유럽의 커뮤니티 조직에서 배운다.?스웨덴-독일-프랑스의 ‘돌봄과 교육공동체’ 탐방(한국여성단체연합)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여성 인권지원, ‘국경을 넘어 함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폭력 추방! Global Friends 만들기 캠페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 통합선거 체험프로그램-‘풀뿌리 생활자치의 현장을 가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인신매매성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베트남·캄보디아와의 연대구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결혼문제해결을 위한 베트남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네트워크구성(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여성활동가의 다문화 이주여성 언어·문화 체험프로그램(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내 안의 아시아, ‘우리’가 만드는 아시아(언니네트워크)

삼성생명\_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날(NAL)자

유한킴벌리\_미래여성리더십장학사업

교보생명\_짧은 여행, 긴 호흡(전국여성활동가 19개팀 248명)

교보생명\_도움달기 프로젝트(11개사업)

CJ홈쇼핑모금방송기금\_엄마에게희망을 여성건강지원사업

우림건설\_우림필유장학사업

### 100인 기부릴레이+일반기부금(수시)

6월 민주항쟁 20주년기념여성행사 ‘여성운동과 만난 6월 민주항쟁20년’ (6월항쟁20주년여성추진위원회)

제5회 풀뿌리 시민운동사례 공모사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7 한국사회포럼(한국사회포럼2007조직위원회)

2007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외 85개 단체)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 전국캠페인 :이랜드불매운동(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외29개단체)

### 지정기탁

SBS사회공헌\_‘여성 한부모 가족의 탈빈곤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2008

### 100인 기부 릴레이+일반기부금

제2기 여성주의미디어액티비스트 양성워크숍- 걸프렌즈, 미디어 빠위!(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아공)

인문학강좌를 활용한 여성 리더 양성과정 ‘도봉여성희망학교’ (방이골중합사회복지관도봉시민회)

여성, 지방의회진출 50%프로젝트 “도전하는 여성이 바꾸는 지역살림”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울산지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줌마전문기자단 양성과 소통매체개발 시범사업(줌마네)

노인을 위한 소비자상담전문가양성프로그램(한국세니어연합)

줌마들이 만드는 지역차별 개선 프로젝트 “우리는 평등서포터즈” (안양여성외전화)

여성주의 지역문화 해설사 양성과정(울산여성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찾기 및 성평등의식정착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성교육전문강사 인프라 구축 및 활동지원사업 “성에 대한 즐거운 수다” (충남성폭력상담소)

3·8세계여성의날 100주년기념 ‘평등의식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한국여성노동자회)

산업형 성매매밀집지역 실태조사와 밀착형 홍보사업 “여성들의, 여성들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대전여민회,구세군재단운집)

연극을 통한 청소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ready go! 비폭력 4막5장” (여성문화인권센터)

1060“여성이반”의 역사와 세대를 잇는 짝지끼기 “육색찬란회동(캠프)+ 짝지끼기(멘토링)”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8세계여성의날 100주기기념 한국여성대회 역사자료집 제작 및 ‘한국여성대회가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

### 기타사업

### SBS모금방송+SK텔레콤 이웃사랑성금

BRIDGE PROJECT(동료활동가교육 및 양성프로그램)(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이태원지역 클럽중사여성들을 위한 사랑방프로젝트: Women+Space=Empowerment(막달레나의집현장상담센터)

이주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위한 공방사업(안산이주민센터)

여성장애인 말문을 트다(진주시민미디어센터)

신나는 여성이 만드는 신나는 농촌(홍성여성농업인센터)

여성새터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휴리스여성의 휴일(休+Work)카페 프로그램(열린복지)

### 지역사업

### 기획공모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 육성지원사업)\_

유럽 여성정치참여 운동, 현장에서 대면한다(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한 일 지역생협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생협 여성활동가의 일본지역생협탐방(한국여성민우회소비

자생활협동조합)아시아여성네트워크 결성1주년기념 국제심포지움 ‘아시아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한국여성외전화연합)

액티뷰 뮤지엄 글로벌 네트워크조직강화활동-“여성들은 지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활동가들의 기(氣)업(UP) 프로젝트: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독일! 시민교육을 배운다(서울YWCA)

아시아여성들의 조각보연대(언니네트워크)

희망무역을 통한 풀뿌리 여성환경인의 글로벌리더십 양성프로그램(여성환경연대)

지역역을거리 해외정책 탐방- ‘여성농민 인도.방글라데시 정책연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교육사업

교보생명 짧은 여행, 긴 호흡(전국여성활동가 16개팀 186명)

교보생명 도움닫기 프로젝트

교보생명 모금전략워크숍

CJ모금방송\_엄마에게희망을 여성건강지원사업

SBS\_전교조 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SOS

유한킴벌리\_미래여성리더십장학사업

우림건설\_우림필유장학사업

풀무원 장학지원 프로젝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_다문화다함께 프로젝트

G마켓\_제3회 G마켓공모전

G마켓\_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워드멘토

삼성생명\_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날자(NAL) 프로젝트

우정사업본부\_다문화가족안전망구축프로젝트

### 지정기탁

교보생명\_빔프로젝터 대여사업

### 기타사업

### 교육사업

### 100인 기부 릴레이+일반기부금(수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발족 및 민선4기 지방의회 2년, 지방의원 풀뿌리 생활정치 의정평가 토론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평가워크숍(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국민캠페인-W.W.F(We Want Safety)(한국여성민우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사회포럼2008(전국교수노동조합)

제6회 풀뿌리시민운동사례공모사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009

### 100인 기부 릴레이+일반모금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를위한 아줌마 전문가지단양성과 소통매체개발 시범사업(줌마네)

2010지방선거, 여성세력화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한국여성단체연합)

돌봄노동 경제공동체 모델 만들기(인천여성노동자회)

차세대 여성주의 문화지도자육성을 위한 여성주의 문화교육 프로그램(또하나의문화)

성(聖)스러운 성(性)이야기-중년 여성의 성과 성역할 바로 세우기(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도움닫기(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울산여성주의 문화기행으로 성평등한 울산을 만나다(울산여성회)

6회생존자말하기대회: 분노와 희열을 노래하라(한국성폭력상담소)

Writing Itaewons: ‘후커힐’ , 그리고 이태원 이야기(막달레나의집현장상담센터)

여성이반커뮤니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반성매매운동활성화를 위한 희망네트워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대학내 여성주의 문화확산과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 “웹2.0세대, 여성운동을 접속하다!” (한국여성민우회)

### 교육사업

### SBS모금방송+SK텔레콤 이웃사랑성금

My New Partner: 찾아가는 성매매피해여성 학습 및 취미활동 지원프로그램(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새날지기 ‘무지개심터’ )

장애여성 출추는 학교 <상상보다 큰 호흡>(장애여성공감)

새로운 눈으로, 열린 가슴으로 살아가기(씨알여성회부설광주결혼이민자센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광주여성회)

한부모 희망날개달기(대구여성노동자회)

한부모·빈곤가정의 여성가장들을 위한 역량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프로그램(제주상담센터부설가족사랑상담소)

휴리스·주거불안계층 여성의 부업프로그램 ‘희망일터’ (열린복지)

저소득 가족공동체 심성교육지원프로그램 I : 내안의 분노, 사랑하며 다스리며(포항여성회)

<b>기획공모</b>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2009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동북아여성평화회의추진위원회)
아시아를 두드리는 여성주의액션(언니네트워크)
한·일 지역생협 네트워크강화를 위한 일본지역생협 여성활동가초청교류회(한국여성민우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파워링·연대 그리고 변화:여성인권실현을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활동강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을 향해 날자 세계로! 미래로!-전쟁과 여성인권 국제네트워크 조직강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새로운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전략모색(송란회)
호주성매매여성지원 '프로젝트리спек트' 참여와 여학연수를 통한 국제적 역량강화(이유미)

<b>삼성생명_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날자(NALJA) 프로젝트</b>
<b>교보생명_짧은 여행, 긴 호흡(전국활동가 18개팀 185명)</b>
<b>교보생명_모금전략워크숍</b>
<b>우정사업본부_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b>
<b>아모레퍼시픽_여성생활, 이용시설 및 비영리여성단체시설개보수사업</b>
<b>태평양복지재단_여성가장자녀 교복비지원사업</b>
<b>유한킴벌리_미래여성NGORI더십장학사업</b>
<b>CJ모금방송_엄마에게희망을 여성건강지원사업</b>

<b>지정기탁</b>
<b>교보생명_빅프로젝터 대여사업</b>
<b>국민은행_국민은행노동조합_빈곤여성가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일하는여성아카데미)</b>
<b>우림건설_강허달림콘서트, 소리 그녀가 되다(강허달림후원회)</b>
<b>대구도시가스_제6회 고정희청소년문학상(경남여성회)</b>
<b>넥스토타이이_다문화연구사업(이주여성인권포럼)</b>
<b>민주당_유가족지원사업(웅산참사유가족연합회)</b>
<b>마린랜드_빈곤여성가장 및 자녀학비지원</b>
<b>기업은행_2009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클린~카' 사회공헌사업(백혈병환우회)</b>
<b>필하모니아코리아_2009 한국여성재단10주년기념음악회((주)부영)</b>

<b>고문</b>	<b>김성주</b> 성주 디엔디 사장	<b>전문위원</b>
명예고문 <b>이희호</b>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b>노성대</b>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b>강남식</b>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고문 <b>김옥렬</b> 한국여학사협회 고문	<b>민경춘</b> 전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b>김명훈</b>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b>김현자</b> 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b>박양실</b> 박산부인과 원장	<b>김명희</b> 한마음혈액원 혈액관리국장
<b>박영숙</b>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b>박윤정</b> 에스모드서울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이사	<b>김영옥</b> 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b>박윤정</b> 에스모드서울 이사장	<b>손숙</b> 연극인	<b>박영란</b>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b>윤후정</b> 이화학당 이사장	<b>신수연</b> 코리아스테파 대표이사	<b>소라미</b>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b>이연숙</b> 전 국회의원	<b>윤후정</b> 이화학당 이사장	<b>심영희</b>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이효재</b> 한국여성사회교육원 이사	<b>이기열</b> 덕수케미칼 대표	<b>이상구</b> 지구촌보건복지재단 사무총장
<b>정의숙</b>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b>이길여</b> 가천길재단 회장	<b>이숙진</b>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b>이숙자</b> 성신여대 총장	<b>이영주</b> 대검찰청 형사2과장
<b>이사회</b>	<b>이연숙</b> 전 국회의원, 한국여성재단 고문	<b>이태수</b>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사장 <b>조형</b>	<b>정미정</b> 이룸라이프 대표이사	<b>정무성</b>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이사 <b>강지원</b> 강지원변호사사무실 대표, 변호사	<b>정의옥</b>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b>정진주</b>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b>김선영</b> 한국여학사협회 고문	<b>최영희</b> 전 국회의원	<b>조영수</b> 백상치과의원 원장
<b>김정숙</b>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b>한명섭</b>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b>배분위원회</b>		<b>편집위원회</b>
위원장 <b>조홍식</b>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재단 이사		<b>김혜련</b> 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총괄팀장
부위원장 <b>이재경</b>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b>로리주희</b> 줌마네 부대표
위원 <b>김경희</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박미라</b> 작가, 치유글쓰기 강사
<b>김현미</b>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b>이유진</b> 한겨레신문 기자
<b>박경수</b>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정박미경</b> 작가, 자유기고가
<b>송대영</b>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신은주</b>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사무처</b>
<b>오혜란</b> (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외협력실장		사무총장 <b>강경희</b>
<b>윤홍식</b>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총무팀 <b>박애순</b> 팀장
<b>장혜경</b>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b>강서정</b> 대리(육아휴직중)
<b>정순돌</b>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박선희</b> 대리
<b>조현옥</b>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b>유경미</b> 대리
<b>진선미</b> 법무법인 이안 대표, 변호사		<b>이현미</b> 대리
<b>이숙진</b>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기획홍보팀 <b>송선민</b> 팀장

<b>기획홍보위원회</b>		<b>배분팀</b>
위원장 <b>이경순</b>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재단 이사		<b>명진숙</b> 팀장
부위원장 <b>김효선</b>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b>김유은경</b> 대리
위원 <b>김혜련</b> 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총괄팀장		<b>신유미</b> 대리
<b>강부길</b> SBS제작본부 부장		<b>이해리</b> 대리
<b>김금옥</b>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사무처장		<b>최경진</b> 대리
<b>서해진</b> SBS PD		여성경제 <b>홍현희</b> 팀장
<b>오한숙희</b> 여성학자, 방송인		사업팀 <b>박재석</b> 부단장
<b>이상엽</b> 우림건설 전략기획부 부장		
<b>이혜경</b>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b>이홍주</b> MBC프로덕션 제작사업 실장		
<b>임혜선</b> KBS PD		
<b>진양혜</b> 아나운서,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한국여성재단을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과 나눔을 주신 여러분에게

지나온 10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또 다른 10년을 시작한

한국여성재단이 가는 길에 든든하고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